

# 김총리 “모더나 백신, 향후 2주간 총 701만회분 백신 공급”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공급차질이 발생했던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 모더나 사는 향후 2주간, 총 701만회분의 백신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 총리는 이같이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텐데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더 많은 백신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입되어 전 국민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21일 1차 예방접종률이 50%를 돌파했고, 2차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이 11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며 “정부를 믿고 접종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의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은 물론, 지자체·군·경·소방 등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한 분이라도 더 접종을 마치셔야만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앞당겨진다”면서 “미



처 예약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접종의 기회는 계속 열려있다”며 변함없는 동참을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김 총리는 보건 의료산업노동자의 ‘9월 2일 총파업’ 예고에 대

해 “그간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오면서도 현장에서 느꼈을 고통과 피로감, 불합리한 처우 등 파업을 고민하는 의료인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감사와 응원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공공의료 확충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

히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지금, 국민들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지금 투쟁과 대립보다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의료인들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23일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 대응이 4차 유행 극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고 알렸다. 때문에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주 만큼은 매일 한번 더 현장을 찾는다”는 각오로, 취약업종과 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방역조치들이 빈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23일 밤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이라며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자체는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강풍과 침수피해가 없도록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광수기자

## 【기고】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보이스피싱 4고 실천으로 근절하자!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포스트(post) 코로나는 희망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문가들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고 있다.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죄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발생 역사는 약 1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의 청와대 해당하는 당시의 권력기관인 왕실(宮을) 사칭하여 다량의 금불이를 편취한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오늘날까지도 검찰, 경찰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찰백서(2020,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7,667건 발생에 6,3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2020년 31,681건 발생하여 7,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006년 보이스피싱 통계작성 이후 발생은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요즘에 주로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기 유형은 다양하다. 앞서 언급한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사칭하여 협박하는 유형과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며 자녀를 사칭하여 부모 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는 유형,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낮은 금리를 미끼로 대환대출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거나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는 수법이 있다.

또한, 페이스북 등에서 발췌한 멋진 미군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인 것처럼 속이며 피해자를 여러 날에 걸쳐 안심시켜 마음의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금과 등 선물을 보낼 것처럼 수수료 등 명분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여 속여 뺏는 일명 로맨스 캅이 있다.

그리고 여성이나 남성의 나체 합성 동영상 만들어 실시간 영상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오 벗은 피해자를 촬영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몸캠 피싱도 유행하고 있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우선 전화를 끊기, 자녀의 액정 파손 문자가 오면 전화로 다시 확인하기, 사용하지 않는 카드 사용 문자가 대한대출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대표 전화 번호)나 금융기관 방문하여 처리하기, 모르는 외국인의 채팅 요청은 삼가기, 신뢰할 수 없는 URL 설치와 불건전한 채팅은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만일 피해금을 이체한 후에 보이스피싱인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행히 인출 전이라면 아직 찾아가지 않은 돈에 대하여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A은행에서 B은행 그리고 C은행으로 순차적으로 이체되어 인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구제 신청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사후에도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인출 여부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자괴감이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긴다고 한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이 더욱 활개를 치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누구나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되는 이유는 나만은 아닐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친밀한 관계에 기인한 상황적 적합성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첫째 당황하지 않고(1고), 둘째 의심하고(2고), 셋째 전화 끊고(3고), 넷째 공식 홈페이지에 확인하고(4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우리 사회에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천안동남경찰서경감이종남

# 허성무 창원시장, 국토부장관 만나 현안사업 지원 건의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동남권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지역 주요현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허 시장은 노형욱 국토부장관을 만나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 등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핀셋 해제 △수서발 고속철도(SRT) 경전선 운행 △동대구~창원간 고속철도 신설 △창원 북면~함안 칠원간 도로 신설 △국도 79호선(창원 동정동~북면 구간) 도로 확장 등 5건의 창원시 시정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먼저, 허 시장은 창원시 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외곽지역인 의창구 동읍, 북면

과 주택가격 상승과는 관계없는 동(洞) 31개 지역 등 총 36개 동(洞)지역에 대한 핀셋 해제를 요청하며 “창원시 규제지역 중 외곽지역 및 주택가격 상승과 관계없는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정부와 창원시에 대한 주민반감을 해소할 수 있고 지역 경기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 시장은 수서발 고속철도(SRT) 경전선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동대구~창원간 고속철도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 시장은 “창원시는 내년 창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영향권 내 인구가 200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방 거점도시로, 그 위상에 걸맞은 고속철도 중심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고속철도의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

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 및 고속철도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허 시장은 창원 북면~함안 칠원간 도로 신설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추가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국도 79호선(창원 동정동~북면 구간) 도로 확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허 시장은 “도로 신설 및 확장을 통해 도시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광역교통망도 확충하면 동남권 물류산업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도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도 각각 찾아 창원시의 현안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피



력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국토부장관 면담에 앞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김이탁 상임위원을 만나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며 사업 인정 동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남궁영기기자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용인시의회  
YONGIN CITY COUNCIL

### 서울시의회, 시대정신에 답한 국회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지방의회법(안)' 발의 환영!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화답**

8월 18일, 서영교 위원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방의회 위상 확립과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안)」을 발의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하였다.

「지방의회법」은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전현희 전 국회의원 대표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화답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하였듯이,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이뤄진다면 시대의 부름에 답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방의회법(안)」을 먼저 발의해 주셨던 이해식 의원님과 이번에 발의해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께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를 표하였다.

이해식 국회의원이 먼저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독립된 인사권', '지방의회 경비의 독립(예산권)', '교섭단체 구성의 근거', '인사청문회 실시' 등이 있다.

이번에 발의된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지방의회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

충돌 방지' 내용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와 함께 신뢰성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법(안)」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실화되었고, '자치조직권 강화'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과제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이 법안에 포함되어 서울시의회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한 지방의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을 위한 입법은 국회의 역할인 만큼 서영교 위원장님과 이해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함께 하겠다."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인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올해는 '유능한 공무원보다는 무능한 시민의 대표가 낫다'며 한 평생을 지방자치와 민주화에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의 중추적 역할에 기반이 될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로 시작한다'는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며 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지방의회법(안)」 발의를 환영하였다.

최광수/기자

### 임오경 의원, 'OTT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방안' 세미나 개최

#### OTT시대 영상콘텐츠 생태계를 진단하고 IP 활성화 위한 정책방안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OTT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방안 세미나'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OTT 시대 방송콘텐츠와 더불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영상콘텐츠 전반의 중요성을 문화산업의 영역에서 재확인하고,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여 영상콘텐츠 IP 중심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발제와 종합토론에는 콘텐츠 산업계 전문가와 학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콘진원 정책본부 이양환 본부장이 'OTT 환경과 영상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연세대학교 최선영 교수가 'OTT시대 영상콘텐츠 IP 생태계 활성화 전략'에 대해 전한다.

또한 종합토론에는 발제자를 포함하여 ▲인하대학교 하주용 교수(좌장) ▲호서대학교 이준호 교수 ▲웹드라마, 웹예능 제작사 와이닷미디아 이민석 대표 ▲ '슬기로운 의사생활2' 제작사 예그이즈

최정부/기자

커빙 고중석 대표 ▲타입와이즈인베스트먼트 신강영 본부장이 참여한다. 토론 참석자는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OTT 플랫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논하고, 새로운 시대 영상콘텐츠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OTT 시대를 맞아 상상력, 창의성, 독창성 등 문화적 가치에 기반하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장기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우수 IP 확보, 제작지원, 펀드, 인력양성 방안 등이 논의될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누구나 24일 오후 2시 국회회의 임오경 유튜브 채널 '임오경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안민석 의원,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해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례제 도입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과 함께 위기에 직면한 대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신청 학점별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가는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민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학과 학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종환, 류호정, 문진석, 박상혁, 송갑석, 송기현,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이상현, 인제근,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남주/기자

### 최춘식 의원, "내년도 국비 확보 및 현안 공유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포천시청에서 포천시 주요 현안사업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2년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춘식 의원과 박윤국 포천시청, 심창보 부시장을 비롯한 포천시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 국고보조사업과 주요 역점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2021년도 포천시 주요 역점현안사업은 ▲포천시청사 증축사업 ▲육정-포천시 건설사업 ▲고모-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군내-내촌(수원산터널)도로 개설 사업 등 총 14건이다.

포천시에서 건의한 2022년도 주요

국비보조사업은 ▲신평 염색집단화단지 공업용수도 관련 기업애로 해소 ▲군내-신북 건설사업(국도43호선) ▲시도24호선(가재-신평간)도로 확·포장공사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술보급 불런딩 협력모델시범 등 총 5건의 정부부처 소관 사업의 국비 확보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포천시는 이념과 정당보다는 오로지 지역주민과 포천시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가야한다"며 강조했다. "오늘 논의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현안을 살피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최만식/기자



###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현장활동 실시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용식) 소속 이용식, 서진부, 정석일, 최선호, 박재우 의원들은 8월 19일 관내 주요시설 6곳을 현장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안건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발달장애인복지관(시나브로) 신축 사업장을 시작으로 임경대 무장애 관광지 조성 사업장까지 양산시 지역 사업장 6곳을 방문했다.

경남도 최초 발달장애인 전용 복지관인 '시나브로 복지관'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내 건립 중이며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1,863㎡ 규모로 주간보호실, 일상생활 체험실, 심리안정실, 각종 치료실 등이 배치된다. 어린 시절부터 평생 지속되는 장애 특성과 양산시의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양산시 발달장애인복지관은 지역발달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웅상지역에는 또 다른 숙원사업이 있다.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별동 건물로 지상 4층 연면적 925㎡

규모의 '양산 동부건강지원센터'이다. 웅상지역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이 살지만 천성산을 경계로 양산 시보건소와 20km 이상 떨어져 보건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인 양산 동부건강지원센터에서는 진료는 하지 않지만, 금연·절주 등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고혈압과 심뇌혈관 질환 등 성인병 예방, 치매예방 특화사업 등 각종 보건 사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현장에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과 문제점 등 시설 곳곳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시설이용자 중심의 공간활용과 공사 마무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양산 동부건강지원센터의 거푸집 해체에 따른 재료분리 결함과 벽면 철근 노출에 따른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시나브로 복지관은 공사 소음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실공정이 계획공정 보다 늦어졌는데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대로 연말까지 준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웅상야구장 건립으로 인해 철거되었던 웅상씨름장 신축 현

장, 경남도교육청 (구)양산도서관 양산시로 이관되어 재개관될 윤현정 도서관, 양산산단 진출입 차량의 심각한 정체를 해소할 양산2교 건립, 양산8경 중 하나인 임경대 무장애 관광지 조성 사업장을 끝으로 현장활동 일정을 마쳤다.

이용식 위원장은 "이번 현장활동은 양산시의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기획행정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광용/기자



### 전남도의의회 이현창 위원장, '섬진강 수해 1년, 수해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배상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근본적인 수해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명확히, 피해액 조속히 배상 촉구

전남도의의회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례)은 제355회 임시회에서 '섬진강 수해 1년, 수해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배상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전남에서만 3천여 명의 이재민과 1,983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등 순천, 광양, 곡성, 구례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6일 수자원위원회에서 발표한 '섬진강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에 결과에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홍수기 댐의 무리한 저수과 급격한 방류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배상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아 지

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근본적인 수해 원인 제공기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규탄하고 피해배상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 "관련기관의 책임회피가 피해보상 지연으로 이어져 수마

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수해를 잊고 주민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통해 조속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안/기자



Publication information for 'Culture Daily' including website (http://www.dailyculture.kr/),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 농식품부, 주말 집중호우대 비피해 예방특별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저기압 및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전국에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농림 취약 분야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기상청은 8월 21일부터 다음 주까지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주기적인 강약을 반복하여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집중호우 예상 지역은 매우 유동적이며, 일본, 중국과 같은 강한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방역시설, 산사태·태양광 취약 지역에 대하여 8월 20일까지 특별점

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분과 공조 유지, 농업인 안내, 응급 복구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갖춘다. 김현수 장관은 취약지역과 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보안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성지아기자



## 산업부 공공데이터, 새로운 사업 모델로 활용되다

### 제9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4.28~7.24까지 「제9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그 중 발전 부산물 중개 플랫폼 'BY-BACK'과 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대한민국 가상발전소'를 최고상으로 선정하였다.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은 산업부가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시행중이며, 이번 공모전은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하여 민간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시범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한 빅데이터 분석 분야는 클라우드 서비스(MS사 Azure)를 활용하여 학생,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고, 향후에는 서비스모델 사업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상식은 산업부와 코트라·한전 등 13개 공공기관 관계자, 수상자가 참가한 가운데 비대면 시상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산업부 최규종 정책기획관의 축하 및 수상자 인터뷰, 공모전 개선방안 논의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수상자에게는 개별로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3개 분야에 총 176개팀이 참가하였고, 전문가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 3팀, 최우수상 6

팀 등 총 29팀의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대상인 산업부 장관상은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발전 부산물 중개 플랫폼 'BY-BACK',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대한민국 가상발전소', 빅데이터 분석 부문에서 '수출예측을 통한 수출 유망 국가와 품목 추천'이 각각 영예를 차지하였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분야별 기술 컨설팅,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및 글로벌 시장 진출(KOTRA) 지원,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비 지원 등 후속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사업화 연계시, 유사업무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등 적극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최규종 정책기획관은 축하사를 통해,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질 좋은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데이터 개방 2.0" 정책에 따라 민간의 수요를 개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 근로복지공단, "2021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 공동개최

근로복지공단은 한국노동경제학회(학회장 채창균)와 공동으로 20일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노동복지 세션)를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다. 이날 노동복지 세션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3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디지털 노동환경에서 산재보험이 나아가야 할 역할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 발제자인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체계 구축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재구조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관계에서 재책근무 활성화 등 노동 제공 형태의 변화와 플랫폼 노동 등 비근로 관계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 제도의 재구조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제2 발제자인 김영미 근로복지공단 책임연구원은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역사적 접근과 새로운 책임'이라는 주제로 독일의 산재보험 형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독일의 사회보험 발달과정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책임 재정립 방향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이찬미 근로복지공단 전임연구원은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를 위한 산재보험 재정운영방식의 적정성 검토: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으로'라는 주제로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재해보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검토해보고,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 재정운영방식의 적정성 방향을 발표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하는 전 국민 재해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최광수기자



## 최종건 제1차관, 나이지리아 방문 결과

최종건 제1차관은 8.18.~ 19.간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마지막 방문지로 나이지리아를 방문하여「주바이루 다다(Zubairu Dada)」외교 국무장관, 「로티미 아미치 (Rotimi Amaechi)」교통부 장관, 「바살 살리히(Bashir Salih Magashi)」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접촉하고 기니만 해양안보 협력을 포함한 양자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최 차관은 '다다' 외교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수교 이래 40년간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관계가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평가하고 급변 방문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해나가면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자고 하였다. 양측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인구나 자원을 가진 나이지리아 간 협력 잠재성이 크다는데 공감하면서,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측은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어 우호적인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나이지리아 측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개정 등 제반 협정을 재검토해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최 차관은 기니만 내 선원 납치가 빈발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고 하고, 한국 정부도 양·다자 차원의 지원을 통해 기니만 해양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 바, '다다' 장관은 한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이

문제는 일국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엔 논의된 제반 현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한국에서 제6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 한-아프리카 포럼 등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최 차관은 '아미치' 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기니만 해상안보 강화를 위한 나이지리아 국내 정책, 입법 현황 및 정부 내 업무 분장 등에 대해 청취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 등에 논의하였다. 최 차관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니만 해상안보를 위한 정책인 'Deep Blue Project'가 성공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하고, 교통부가 나이지리아 근해 해양안전을 담당하는 해양안전행정청 [NIMASA]의 상위 부처인 만큼, 추후 개최되는 제6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에 참석하여 여러 협력 방안을 협의해나가자고 제안하였으며, '아미치' 장관은 교통부의 참석을 확인하였다. 최 차관은 마가시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양국 간 국방 협력 확대 및 기니만 해상안보 협력에 대해 협의하였다. 나이지리아 측은 기니만 해양안보에 관한 우리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양측은 앞으로 이에 관련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 차관의 금번 방문은 외교차관으로서의 최초 방문으로, 서아프리카

경제 협력 핵심 국가이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우리의 최대 건설 수주국인 나이지리아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AfCFTA 개시 관련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기니만 해상안보 협력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정부 분야 협력 기반도 강화하였다. 특히, 최 차관은 기니만 해상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외교부, 근해상 안보를 담당하는 교통부, 공해상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 등 기니만 이슈와 관련된 주요 부처 장관을 모두 접촉하여 다층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 부처 기능에 걸맞은 협력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기니만 해상안보 관련 우리의 관여 수준을 보다 심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금번 최 차관의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 순방을 통해 북·서 아프리카 핵심 3개 협력국과의 양자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견 선진국으로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확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만식기자



## 해양안전의 필수, 바다안개 정보를 한곳에!



기상청은 최근 증가하는 바다안개(해무)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8월 20일부터 '해무 정보 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 서해 도서지역에서는 해무가 연간 최대 100일 관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상사고는 2010년 47건에서 2020년 1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국가통계포털 2021). 이에, 선박 운항 등 해양안전에 필수적인 해무에 대한 관측정보, 위성영상, 예측정보 등 모든 가용한 정보를 모아 해양기상정보포털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해무 예측과 관측정보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며, 해구별 예측정보 등 신규서비스를 추가하였다. 예측정보는 원하는 지점의 상세한 해무 정보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구별 해무 예측정보를 최대 48시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제공한다. 관측정보는 해무 실험과약을 위한 △해양안개 관측(61소), △폐쇄회로 TV(CCTV) 정지영상(74소)의 지점 관측과 △위성 안개탐지 영상, △전국 해무실험 분포도를 제공한다. 어민, 관계기관, 여객선, 해양레저 등 다양한 해양 이용객이 해무 관측과 예측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자료활용 편의성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레저 및 관광 시 해무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 관련 기관의 선박사고 대응, 구조활동 등 방재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해무정보 통합서비스는 해무로 인한 해양사고 감소와 국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며, "특히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 입출항 지원 등 해무 속에서 길을 안내해 줄 해양안전의 신호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김미성기자

## 서울시교육청, "학생 통합 지원을 위한 교육후견인제 본격 시작"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마을-가정이 함께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후견인제 시범 사업을 오는 9월부터 20개 마을 기관과 함께 본격 시작한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84명의 교육후견인이 참여하여, 여러 기관에서 분산 운영하는 학생 복지제도도 인해 생길 수 있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지속 상담과 학생 처지에 가장 적절한 학교-가정-지역을 잇는 복지 지원을 통해 최종적 복지전달자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후견인은 학생, 학부모, 담임과의 지속적 상담 및 소통을 통해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사회적 보호자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이며, 후견인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교육후견인제를 운영하기 위한 마을 기관을 공모하였다. 교육후견인제 운영 마을 기관은 교육청 지정형 11개 기관, 자치구 매칭형 9개 기관으로 총 20곳이다. 자치구 매칭형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영등포구, 은평구, 구로구, 서대문구, 양천구,

중랑구 등 총 6곳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후견인제 성공적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교육후견인제 시범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구로구(구청장 이성),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 양천구(구청장 김수영), 중랑구(구청장 류경기) 등 6개 자치구를 '협치형 학생 통합지원 참여 자치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교육후견인 공동 지원은 기호도 교육복지와 사회복지의 통합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청-자치구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한 협약식은 오는 9월에 개최한다. 교육후견인의 안정적 활동을 위해 동단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안전망 협의체가 운영된다. 이 협의체에는 교육후견인, 후견인제 운영 마을 기관, 동주민센터 등 유관 기관 및 각급 학교가 참여하여 후견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또한, 교육후견인의 사업 이해도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30시간 연수를 진행한다. 기본연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운영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후견인제 사업을 통해 교육청의 교육복지, 학습복지와 자치구의 청소년복지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사각지대 없는 적극적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후견인제를 시작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치형 학생 통합지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라며 "교육후견인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이번 시범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6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모든 자치구와 함께 학교-가정-지역사회의 분절 없는 통합지원을 통해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서울시, 20일 밤9시 별빛으로 빛난다... 에너지의 날 소등캠페인

## 8.20 제18회 에너지의 날 맞아 온라인으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개최

서울시는 8월 20일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제18회 에너지의 날'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의 날 행사는 에너지 시민연대 주관으로 전국 11개 시도에서 동시 진행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없이 온라인(유튜브)으로 진행된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한국의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계기로 2004년부터 매년 8월 22일 전 국민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2021년에 18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서울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서 후원한다.

제18회 에너지의 날은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와 오후 2시부터 1시간 에어컨 설정 온도 2도 올리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울시청사를 비롯하여 서울시산하기관, 자치구 청사 등의 공공기관, 송례문, 광화문, 덕수궁, 국회의사당, 63스퀘어, 롯데월드, 예술의전당 등 서울시 주요건물들이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에 참여한다.

또한, 에어컨 온도 적정온도(26~28도) 지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에너지다소비건물 및 상업시설 등이 오후 2시부터 1시간 에어컨 끄기 또는 에어컨 설정온도 2도 올리기에 동참한다.



아울러, 전력수요가 많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아리수정수센터, 물재생센터 등 서울시 주요시설 23개소에서 6,985kW 전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유 시설과 건물 23개소는 전기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를 줄이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6,985kW의 용량으로 참여하고 있

며, 이는 2,300여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해당시설들은 오후 2시부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구동하고, 에어컨을 끄거나 설정 온도를 올리고 실내 조명을 하나씩 꺼려서 켜는 등 전력사용을 줄일 예정이다. 에너지의 날 캠페인에는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 및 공동주택 등이 참여하는데 에너지수호천사단에 가입

한 초·중·고 학교 123개교, 에너지자립마을 190여개, 탄소중립 시민실천 사업 14개소 등이 소등 및 에어컨 적정온도 설정하기에 동참한다.

소등현장 중계는 유튜브 검색창에 '에너지의 날'로 검색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에너지의 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도 실시간 관람 할 수 있다.

에너지의 날 온라인 기념 행사는 저녁 8시 40분부터 시작하여 저녁 9시부터 5분간 서울시 주요랜드마크 소등상황을 현장중계하며 9시 10분에는 전력절감량 및 CO2 감축량을 발표한다.

에너지의 날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에너지의 날 홈페이지에서 별빛지기 '참여하기'를 눌러 가입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국민실천이 답이다'라는 슬로건하에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 기념식 시청 화면촬영(캡처) 인증 이벤트 등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폭염, 산불 등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 심각하다"며 "제18회 에너지의 날 소등 및 에어컨 적정온도 설정 캠페인이 지구를 살리는 작지만 소중한 행동으로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마포구, '다시 오고 싶은 마포 만들기' 전통문화 체험 호스트 육성프로그램 운영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마포만의 특색이 있는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육성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전통문화체험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게스트하우스 전통문화체험사업'은 지역 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전통문화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추후 이를 게스트하우스의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천연염색 공예 클래스 △한국 가정식 요리 △자개 공예 클래스 △전통 꽃차 클래스 △전통매듭 공예 클래스 5개 분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마포구 소재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로 분야별 최대 6명씩 총 30명이다.

교육 참여자는 각 분야별로 9월 한 달 간 4회에 걸쳐 나전칠기 손거울 만들기, 장미 꽃차 만들기, 손수건 염색하기 등 전통문화 체험 교육을 받고 이를 토대로 10월 이후 외국인 대상 체험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보는 실습을 하게된다. 교육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교

육으로 변경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다. 참여 신청은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는 (사)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된다.

한편, 마포구는 공항 접근성이 좋고 주요 관광지로 이동이 편리해 서교·동교·연남동 주변으로 400여개의(7월 말 기준)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이는 서울시 게스트하우스의 약 32%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구는 '게스트하우스 전통문화체험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고 더불어 단발성 사업이 아닌 마포만의 전통문화체험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수요에 한 발 앞서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동근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게 이번 전통문화체험사업이 기회가 되어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며 "집체된 관광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구로구 "쿨한 안녕, 잘가 여름아!"

### '걷기 활성화 챌린지' 11~29일 15만보 이상 걷기, 요가 자세 따라하기 미션 인증

구로구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챌린지'를 마련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걷기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11월까지 매달 '걷기 활성화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활성화 챌린지'는 2가지 미션을 목표로 펼쳐진다.

첫 번째 미션은 11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15만보 이상의 걸음을 달성이다. 날짜와 걸음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션 기간 내 누적 걸음 수가 명시된 화면을 캡처하면 된다.

두 번째 미션은 '구로구보건소 신체활동으로 비만예방하기' 카카오톡 채널에 제시된 요가 자세들

중 3가지를 따라한 인증 사진이다.

챌린지 참여를 희망하는 이는 카카오톡 채널 '구로구보건소 신체활동으로 비만예방하기'를 친구추가한 뒤 일대일 채팅을 통해 29일까지 2가지 미션을 달성한 사진을 보내면 된다.

구로구는 내달 8일 주침을 통해 참가자 중 100명을 선정해 신발방수커버, 러닝벨트 등 신체활동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이 매달 진행되는 걷기 활성화 챌린지를 통해 심신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길 바란다"며 "건강을 챙기고 고품질 삶을 누릴 수 있는 걷기 챌린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 용산구, 디지털 반부패교육 '온라인 청렴골든벨'



서울 용산구가 디지털 맞춤형 반부패교육 일환으로 23일~25일 '도전! 온라인 청렴골든벨' 행사를 연다.

전 직원이 쓰는 새올행정시스템 팝업창을 통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윤리 등 분야별 청렴퀴즈(15문항)를 출제하는 방식이다.

퀴즈는 문제는행에서 랜덤 출제, 공정성을 기한다. 대회 참여율이 높은 우수부서(동)와 고득점자(250명)에게는 청렴시책물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최대한 공정하게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패자부활전을 통해 직원 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뒤에는 퀴즈 정답을 행정 게시판에 올리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구는 대회에 앞서 지난 3~8월 6개월 간 '디지털 청렴자가학습'을 운영한 바 있다. 새올행정 팝업창을 통해 25회차에 걸쳐 청렴학습콘텐츠(청렴서약서, 청렴한스폰, 감성메시지, 청렴가이드, 청렴성어, 청렴카드뉴스, 청렴1그램)를 제공, 자가학습을 유도했다.

주 내용은 행동강령 딜레마, 직장 내 갑질, 청탁금지법, 부정부패사례 등이며 팝업창 자동실행 뒤에도 반복 학습이 가능토록 했다.

청렴자가학습, 청렴골든벨 참가자에게는 공무원 승진 등에 필요한 상시학습시간(2~4시간)을 준다.

구는 디지털 맞춤형 반부패교육으로 청렴소통채널 '청렴라디오'도 운영했다. 3~8월 매주 수요일 업무시간 전 약 3분 간 청렴 방송을 진행, 직원들이 직접 쓰고 녹음한 청렴사연, 격언, 청렴송 등을 들려줬다.

성장형 용산구청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 행정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비대면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며 "청렴 1등 구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국민이 감동하는 청렴도시 용산'을 목표로 올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반부패 청렴인프라 구축 ▲취약분야 특별감찰 ▲행정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등 4대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전국 자치구 최고 등급)을 받았다.

최만식기자

**구로구보건소와 함께하는 8월 걷기 챌린지**

**쿨한 안녕, 잘가 여름아!**

**참여방법**

기간 | 2021.08.11.(수) ~ 2021.08.29.(일)

대상 | 구로구민

내용 | 기간 내 모든 미션 달성 후, 1:1 채팅에 인증사진 첨부

혜택 | 주침을 통해 신체활동 물품(100분)을 드립니다

**미션1 - 요가미션 -**

제시된 요가 자세 중 3가지를 따라 하고 인증 사진 찍기

**미션2 - 걸기미션 -**

참여 기간 내 총 걸음 수 150,000보(십오만보) 이상 걸기

★ 미션 1과 미션 2 모두 완료 후, 카카오톡 채널 '구로구보건소 신체활동으로 비만예방하기'로 보내주세요

## 서대문구, 이화여대와 함께 '푸드플랜 실천 전문가' 양성

서대문구가 도시형 푸드플랜 기반 조성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음식문화센터'와 함께 푸드플랜(Food Plan) 실천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20일 밝혔다.

'푸드플랜'이란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순환 등을 포괄하는 전략을 뜻하며 먹거리를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구는 9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북아현동 서대문공동체마을방송과 이화여대에서 '제1기 푸드플랜 실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를 무료로 운영한다.

먹거리 관련 컨설팅, 콘텐츠 개발, 디지털 홍보 활동가와 교육 강사, 창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한 푸드플랜 기초 입문 과정으로, 총 12회에 걸쳐 40시간의 이론 교육과 실습이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푸드플랜 기본 개념과 식생활 교육, 식품 안전, 음식과 소비 윤리, 생산과 유통, 세대를 이어주는 지속가능한 한식, 생애주기별 영양 관리, 채식 문화 등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연구원, 협동조합 및 외식업체 관계자 등이 맡는다.

특히 한국전래음식연구소 강사의 실습 교육과 서대문구의 먹거리 문화 알아보기, 대상자별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기획, 푸드플랜과 나의 활동 계획 발표 등이 교육생들의 흥미와 능동적인 참여를 더한다.

구는 주민 가운데 먹거리 관련 활동 경험자와 전공자,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한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교육 대상자 20명을 선발

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과정을 거쳐 다양한 분야의 푸드플랜 활동가들이 배출되고 이분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이루어 가는 데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서대문구와 이화여자대학교가 함께하는**

**2021 푸드플랜 실천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푸드플랜 실천전문가 양성 과정 제1기 교육생 모집**

**모집기간** 2021.08.11(수)~2021.08.29(일)

**모집대상** 20~40대 10대 이상

**모집인원** 20명

**교육기간** 2021.09.29(수)~2021.12.01(수)

**교육내용** 지속가능한 식생활, 푸드플랜의 개념, 식생활 문화

**교육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서대문구공동체마을방송

**교육비** 무료

**문의처** 서대문구 도시형 푸드플랜팀 ☎02-312-4077

**신청기간** 2021.08.11(수)~2021.08.31(수)

# 의정부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버스 무정차 택시 승차거부 집중 단속

의정부시는 대중교통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 기준 위반 및 운수사업자(버스·택시·화물)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려면 차량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 구조변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하는 차량이 2021년 상반기(1월~6월)에 총 447건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340건, 행정지도 107건에 이르는 등 불법구조변경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반사례는 등화장치 임의변경이 91건, 단속 등화고장 정비 명령 180건, 번호판 상태 불량 124건, 미승인 구조변경 14건, 기타 17건이다.

LED 등화를 임의로 부착하거나 순정 등화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과태료 3만 원과 원상복구 명령이 부과되며, 번호판 봉인 탈락시 과태료 10만 원, 번호판의 등록번호가 가려지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의정부시는 임의로 설치·변경하거나 정식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구조변경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유관기관과 지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021년 상반기 총 37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정류장 무정차 통과가 93건으로 가장 많다.

무정차 통과와 함께 해당버스에 승차를 못했다는 민원 불편 신고에 의한 것으로 당일 운행 기록표 및 버스 내 CCTV 등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하고 있다.

기타 위반 사항은 주로 난폭운전, 운행 중 통화, 신호위반, 배차 간격 미준수 등이며 행정지도로써 처분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무정차 통과와 정류소에 승객이 없다고 사전에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서지 않거나, 승객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서지 못하거나, 정류소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 등 그

사유가 다양하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잦은 불편을 야기하여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

모든 버스정류장에 승객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차후 출발하도록 운수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운수종사자들의 부적절한 언행 및 난폭한 운전,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행정지도·점검을 통해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상반기 총 131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승차 거부 및 부당 요금이 35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기타 위반 사항은 주로 사업구역 외 영업, 미터기 미사용 등이다.

상반기 민원 접수 건수는 35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의 하락(▽224건)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 유행 지속으로 인한 모임 자제 등의 영향으로 택시 이용 승객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택시 이용 관련 민원건수는 택시 이용 승객 감소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며 관련 행정처분 건수도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 등 승객응대 서비스 관련 민원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및 법규 위반 사례에 따른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반복적인 법규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수사업자의 철저한 교육 및 집중 관리를 강조하고, 정기·수시 단속을 통해 택시 이용 승객의 만족도 제고 및 운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 및 홍보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장비를 강화하고 버스의 무정차 통과 및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운수사업자를 통한 운수종사자(기사)의 교통안전수칙, 서비스의 자세 및 운수질서에 관한 교육을 통해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영기기자

# 서구 디지털 성범죄 OUT!...서구,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료대여

인천 서구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카메라 이용 범죄 근절을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및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탐지장비는 전과탐지기와 렌즈탐지기 2개가 한 세트 구성돼 있다. 장비대여 대상자는 숙박업소, 영화관, 병원, 상가, 식당 등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나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 모두가 대여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시설 관계자 등은 먼저 구에 전화로 신청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구청 가정보육과를 방문해 대여신청서를 작성하고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5일 이내이며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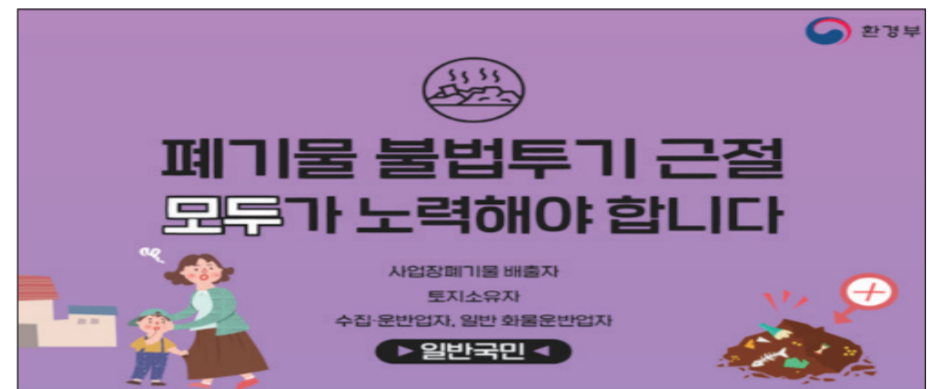
이 밖에도 서구는 각 공공시설의 공중화장실 관리주체별 상시점검반을 편성해 육안 및 탐지장비를 이용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취약지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개선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중남기자



# 통영시, 사업장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통영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업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된 공장에 대하여 2021. 8. 23. ~ 9. 13.(22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사업장 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 허가기준 준수, 폐기물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간의 인계-인수 적정 여부 등이 있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2021. 6. 15.부터 한층 엄격하게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 방치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보험 가입기간을 1년 단위로 명확화 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를 허용보관량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하고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보관량의 보증보험사 보증범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여 불법으로 방치되는 폐기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통영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 영통구, '위생업소 방역수칙 준수여부' 정부방역점검단 합동점검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방역점검단 방역수칙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영통구는 위생업소의 집단감염 및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경인지방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 관계자와 함께 갤러리아 백화점 내 위생업소 30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출입자명부 관리, 종사자 일일 건강체크, 환기소독 대장 작성여부와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이행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소관계자와 이용자 모두 최근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감업병 확산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창원시, 칠서 취·정수장 현장 점검... 창원시 수돗물 안전하다

## 조류경보 '관심' 발령에도 "수돗물은 안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낙동강 칠서지점 조류경보 '관심' 발령 후 지속적인 고수온으로 '경계' 단계 상향가능성에 따라, 칠서 취·정수장을 방문 찾아 취수장의 녹조 상황과 정수처리 현장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 5일 낙동강 칠서지점(칠서취수장 상류 4km)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이후, 17일 현재 유해남조류 32,453 세포수/mL로 이번 주말 보 방류와 강우 등 기상 상태에 따라 '경계' 단계(유해남조류 10,000 세포수/mL 연속 2회 초과)

로 상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경만 소장은 취수장의 조류차단막과 수문교란장치 등 유입차단설비와 정수장의 분말활성탄 투입장치, 고도정수처리시설(오존/입상활성탄) 등 전 공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지금도 잘 대응하고 있지만, 조류경보 단계별 신속 대응으로 맛·냄새 없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창원시 칠서정수장은 이산화탄소 주입으로 응집 효율을 향상시키고, 중염소 처리와 신탄으로 교체된 입상활성탄을 가동하여 녹조 발생에도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영경기자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의회

주민에게 믿음 주는 영양군의의회

# 양평군 드림스타트, '내가 바로 피카소! 팝아트 전시회' 개최

양평군 드림스타트는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아산갤러리(육천면 경강로 1353-27)에서 '내가 바로 피카소! 팝아트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통해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 작품과 현업작가 5명의 작품을 포함한 63개 작품이 전시된다.

현업작가 5명은 작품 출품을 통한 재능기부로 아이들을 응원했으며, 아산갤러리에서는 아이들의 작품 전시를 위해 장소를 무료로 대관 제공했다.

전시회에 참여한 한 아동은 "화가가 꿈인데 내가 그린 그림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니 꿈을 이룬

것 같아 정말 신나고 뿌듯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양평군 드림스타트에서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공평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해 서비스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지·언어/정서·행동/부모·가족/신체·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성율/기자

# 광명시의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구슬땀'

광명시의회(의장 박성민)가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현장 근무 지원에 나섰다.

이번 현장 근무 지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검사 대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의료진을 위로·격려하고 일손을 보태기 위해 계획됐다.

앞서 지난 16일 의장단은 월례회의에서 지역내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지원근무를 하기로 협의하고 지원자에 대해 오전, 오후 각 4시간씩 2인 1조로 근무하기로 결정했

다. 이에 따라 처음 근무자인 박성민 의장과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은 19일 보호복을 입고 일손을 보태며, 박덕수 부의장·제창록 운영위원장 의원은 20일에,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형덕 의원은 21일에 각각 근무할 예정이다.

박성민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의회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평택시, 민간기록 수집 프로젝트 진행!!

사라진 마을, 살아있는 추억, 평택의 옛모습을 찾습니다.

평택시 기록관은 시민의 생활상과 추억이 담긴 민간기록물을 오는 10월 29일까지 수집한다.

평택시는 2020년 제1회 평택시 사진기록 수집프로젝트에 이은 연속사업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민간기록 수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평택의 도시재개발 동네, 고덕신도시, 도시재생 마을을 주제로 소장 사진 및 기록물을 중점으로 수집한다.

그 외에 평택시민의 삶과 연관된 사진, 기념품, 편지, 생활용품 등의 박물관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시민들의 삶과 추억을 공유하고 평택시의 생애사 자료로 보존하고자 한다.

평택에 생활권을 두고 있거나 평택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도시재개발과 고덕신도시의 옛 모습을 간직한 기록, 사라진 자연마을에 관한 자료 등 평택시와 관련된 기록이면 원본 또는 사본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증 가능하다. 디지털화가 가능한 문서류나 사진·필름 기증자에게는 디지털화한 파일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화 및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평택의 기억, 문화, 감성을 공유하고 기록화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기록물 수집을 위해 진행해 평택시(민)의 생애사를 기록하고, 수집된 기록물은 디지털로 보존해 장기적으로 지역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웹서비스로 시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김남주/기자

**제2회 평택시 시민기록 수집 프로젝트**

평택 시민의 생활상을 담은 기록물 수집하며 사라진 마을, 살아있는 추억 시민들의 기억을 공유하고 평택시의 역사자료로 보존합니다

수집기간: 9월 14일(월) ~ 10월 29일(금)

수집방법: 기증, 채취(사진, 다량 수집 후 반송)

대상지역: 재개발 동네와 고덕신도시 관련 자료 (사진, 편지, 생활용품 등 관련 자료) \*고덕신도시 2020년 10월 29일 이전

주최/주관: 평택시 기록관

문의: 평택시청 총무과 031-8024-2625, 비디오팀(비디오팀) 01-6232-2255

## 연천경찰서, 연천군청(통합관제팀) 치안협의체 구축

### 연천경찰서장 CCTV통합관제센터에 감사장 전달하다

연천경찰서는 평소 각종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연천군청CCTV통합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관제팀장(박미영)과 관제요원(이상훈)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7년 11월 1일 개소하여 총840대의 방범카메라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경찰관이 파견근무를 하여 각종 범죄예방 및 긴급상황 발생시 빠른대응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3월28일 오후 6시경 전곡읍에서 차량쌍소니 현장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4월10일 오후10경에는전곡읍 상가 앞에서 폭행을 당해 머리에 피를 흘리는 여성을 발견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여 응급구조가 이루어지는 등 올해에만 각종 교통사고, 폭행, 청소년사건 등 65건을 연천경찰서에 신고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연천경찰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6월18일에는 840대 방범용CCTV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CCTV안전지도를 제작·배부하여 연천경찰서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활동을 하는데 기여하였다.

연천 경찰서장 황세영은 "군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365일 24시간 노력하는 관제요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CCTV 관제센터와 협업을 공고히 하여 범죄로 부터 안전한 연천군을 만들어 연천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2021 양평군 드림스타트 아이들과 현업작가가 함께하는

# 내가 바로 피카소! 팝아트 전시회

날짜 : 2021년 8월 20일 ~ 31일 (월요일 휴무)

장소 : 아산갤러리

양평군 드림스타트

# 더샵 오산 엘리포레

# 성남행복아카데미, "쓰레기도 돈이다, 재활용도 놀이다" 강연



성남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원 회수 로봇을 개발한 김정빈 슈퍼빈 대표를 초빙해 오는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성남행복아카데미 11강을 연다.

'쓰레기도 돈이다, 재활용도 놀이다'를 주제로 한 김 대표의 강연을 시 공식 유튜브 '성남TV'로 시청할 수 있다.

김 강연자는 쓰레기가 환경을 해치는 폐기물이 아닌, 가치 있는 소재로 재탄생하는 과정과 자원순환 경제 구조에 대해 이야기한다.

AI 자원 회수 로봇이 선별한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의 플라스틱 재생 소재인 '플레이크'로 재가공된 뒤 화학기업으로 판매돼 가방, 의류 등으로 재탄생하는 구조를 설명한다.

페트병, 캔 등을 로봇 투입구에 넣은 이용자에게는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줘 버려지는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체계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재활용을 하나의 놀이로써 새로운 문화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개인과 기업,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 대표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을 나와 2011년 중견 철강기업인 코스틸의 최고경영자(CEO)를 맡았다. 2015년 코스틸을 나와 성남시 수내동에 슈퍼빈을 설립했다.

자체 개발한 AI 자원 회수 로봇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188대가 설치됐다.

이성욱/기자

# 시흥시, 연금보다 강한 근력의 힘! 어르신 위한 '목감 근력저축운동교실'

시흥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근력저축운동교실'을 운영한다.

목감동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 기초 건강측정(혈압, 혈당, 체지방)과 노인체력평가를 진행하고, 그룹별로 맞춤형 운동교육을 제공한다.

근력저축운동교실은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8월에는 저근운동(근력저축운동) 및 낙상예방 근력운동 등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교육해 스스로 꾸준히 운동할 수 있게 하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지도실에서 근지구력 및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순환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지닌 어르신들을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건강상담실에 연계해 영양 및 만성질환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올바른 건강 관리법을 지도한다.

근력저축운동교실 신청은 8월 30일까지이며 전화로 하면 된다.

시흥시보건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노화가 진행되며 일어나는 근감소증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목감근력저축운동교실 회원모집**

- 모집기간: 2021년 7월 ~ 8월
- 모집대상: 만 65세 이상 목감동 지역주민 30명
- 신청방법: 방문신청 및 전화 (☎ 031-310-0706, 0703)
- 교육방법: 비대면 홀트레이닝 (8월), 순환운동프로그램 (9~11월)

운영: 2021년 8월 ~ 11월

**홀트레이닝 (8월)**

- 저근운동
- 세라밴드운동
- 근력강화운동
- 스트레칭

**순환운동교실 (9~11월)**

- 기구를 이용한 순환운동

• 일시: 주 2회(화·목) 10:00 ~ 11:00  
• 장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지도실

시흥시 목감우회로 23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운동지도실

# 용인시, 제30기 용인시민대학 온라인 강좌 운영

오는 23일부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서 선착순 모집

용인시가 오는 23일부터 제30기 용인시민대학의 온라인 강좌 '1인 출판'을 위한 글쓰기 대학'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다음달 7일부터 10월26일까지 화상회의 앱인 줌(ZOOM)으로 진행되는 강좌는 글을 잘 쓰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총 7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글쓰기와 책쓰기', '당신도 불통이다'를 쓴 송정 칼럼니스트가 강사로 참여해 소재를 도출하고 찾는 법부터 글쓰기 기초와 표현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25명을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자신만의 글을 쓰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준비했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글쓰기를 향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민대학은 시민들에게 대학 수준의 인문교양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조혜영/기자

# 하남시, '평생교육에 ESG 적용' 환경보호 중심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진행

하남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달 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주라주라 힘을 주라 ~ 웃짜! 웃짜!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 챌린지를 통해 지난해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시민 활력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에 ESG(환경보호, 사회공헌, 지배구조) 개념을 적극 도입해 기획했다.

평생학습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공감하고 실천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챌린지는 '지속가능한 RACE'를 펼친다는 의미로 인식(Recognition)-전략수립(Action plan)-공진화(Coevolution)-확산(Extention) 등 4단계로 구성, 단계별 프로그램들을 구성했다.

이 중 '인식단계'에서는 4명의 전문가를 초빙해 '지속가능한 삶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이 열린다. 이번 특강은 20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4회에 걸쳐 비대면 줌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50여명 가까이 신청해 참여 중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환경·사회공헌·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공진화단계'가 프로그램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단계 프로그램들은 참여자들의 직접적 체험 및 참여 학습 등을 중심으로 시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된다.

환경보호를 위한 주별 미션을 수행하는 '환경을 위한 3R(Reduce·Refuse·Recycle) 운동'을 비롯해 나무 등에 직접 만든 뜨개 옷을 입히는 '그래피팅 니팅, 정(情)을 입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나무 고아원 소개 점자책 제작 프로그램

'마음으로 Green 그림' 등이다.

마지막으로 '확산단계'에서는 '다다익선 위클리 미션 챌린지'를 진행, 참여자와 시민 등이 환경보호 실천

활동을 SNS에 올려 인증하는 등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의 의미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참여를 확대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강호/기자

**웃짜웃짜 챌린지**

초록 지구 공생 프로젝트

Recognition(전문가 특강) 지속가능한 삶의 이해

Action plan(퍼실리테이션) 세상을 바꾸는 생활속 '액션플랜'

Coevolution(함께배우고) #환경을 위한 것들을 #그래피팅 니팅 #마음으로 GREEN 그림

Extention(실천) 다다익선 위클리 미션 챌린지

# 정발산동 주민이 제안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홍보' 표어, 정발산동 공원 곳곳에 퍼진다!

고양시는 지난 달 진행했던 정발산동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표어 공모 결과 5개의 표어를 최종 선정해 피켓으로 제작, 20일부터 정발산동 공원 등 산책로 곳곳에 설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반려인이 늘어나면서 동물 배설물이 공원 산책로나 골목길 주위에 방치되는 등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발산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피켓(반려동물+에티켓) 계도 문구를 피켓으로 제작했다.

정발산동 직능단체 위원들로 구성된 봉사단 '정발산동 춤추는 빗자루'에서도 적극 나서, 피켓 홍보 피켓 설치에 동참했다.

정발산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 진윤숙 위원장은 "이번 표어 공모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정발산동에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정발산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직원들도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반려인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반려인의 에티켓, 우리 정발산동 주민이 먼저 모범을 보이자."라고 당부했다.

이번 '반려인 표어 공모' 최종 선정 대상자는 정발산동 주민 김영미님, 김다혜님, 윤희자님, 최영재님, 별이아빠님 등 5명이다.

한영기/기자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 고령군, 대가야생활촌 'HI STORY 경북' 체험관광상품 운영 공모사업 대상 사업장 선정

고령군은 2021년 경상북도에서 공모한 'HI STORY 경북' 체험관광상품 운영 공모사업 대상 사업장으로 대가야생활촌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사업비 1억 원이 지원되어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HI STORY 경북' 체험관광상품은 3대문화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 주도의 체험관광상품 운영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장 공간 활성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검증으로 관광객 유입, 수익구조 개선 등의 전략 지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고령군 대가야읍에 위치한 대가야생활촌은 대가야 역사·문화가 접목된 현대적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를

통한 대가야 역사 및 생활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관광지로 경상북도 3대 문화권 사업장이다.

확용한 고령군수는 'HI STORY 경북' 체험관광상품 운영 공모사업 대상 사업장 선정을 통해, 고령 대가야생활촌이 가야문화권 광역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종전 기관 주도의 관광시장 분석과 상품 공급에서 탈피해 경쟁력 높은 민간사업체와 함께 대가야생활촌과 여행객을 직접적으로 매칭함으로써 사업장의 공간 활성화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본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감을 밝혔다.

김세기기자

## '영양고추유통공사 설립 이래 영양고춧가루 싱가포르 첫 수출 시작'

영양고추유통공사는 8월 19일 (주)기림과 심영순 빛깔찬 고춧가루 싱가포르 첫 수출을 시작했다. 이날 영양군에서는 오도창 영양군수, 장영호 영양군의회 의장, 경북도청 (외교통상과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6월 24일 영양고추유통공사는 영양군청에서 (주)기림과 심영순 빛깔찬 고춧가루 MOU를 체결했다. 이번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 수출은 영양고추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영양고추유통공사 설립 이래 첫 수출 길을 여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심영순 고춧가루는 싱가포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으로 판매되며, 1차 수출은 사전 예약물량이며 약 12,000달러 규모로

현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물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싱가포르에 첫 수출하는 계기가 되어 국외적으로 영양군 농산물 홍보와 생산농가의 소득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영양고추유통공사(사장 최현동)와 (주)기림(대표 장윤정)은 이번 싱가포르 첫 수출을 통해 점차적으로 영양 고추판매를 확대하며 나아가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주요 국에 영양고추의 판로확대에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

최현동 영양고추유통공사 사장은 설립 이래 고추 단일품목으로



수출 100만불 금자탑을 세우는 유망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감성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영

양고추 세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 대구시 코로나 시대 안전 힐링 여행 '두근두근 챌린지 투어' 떠나 보세요!

#### 경북(100선)과 함께 하는 안전한 대구·경북 여행 캠페인

**두근두근 대구 챌린지 투어 15**

참여 기간: 2021. 7. 15.(목) - 키트배포 소진 시까지

참여 방법: 관광지 방문, QR코드 스캔, 미션 수행, 기프티콘 받기

**두근두근 대구 챌린지 투어 인증 관광지**

- 1. 1동서사, 호국박물관, 불국사박물관
- 2. 1수영장, 대구야생촌
- 3. 1장영순기념사업장(수정지, 대구수목원)
- 4. 1수영장(수영장, 대구수목원)
- 5. 1장영순기념사업장(수정지, 대구수목원)
- 6. 1수영장(수영장, 대구수목원)
- 7. 1수영장(수영장, 대구수목원)
- 8. 1수영장(수영장, 대구수목원)
- 9. 1수영장(수영장, 대구수목원)
- 10. 1수영장(수영장, 대구수목원)
- 11. 1수영장(수영장, 대구수목원)
- 12. 1수영장(수영장, 대구수목원)
- 13. 1수영장(수영장, 대구수목원)
- 14. 1수영장(수영장, 대구수목원)
- 15. 1수영장(수영장, 대구수목원)

**아나나!** 7. 15.(목) ~ 10. 31.(일) QR 코드 스캔 시 참가자 중 매일 15명을 선정해 BHC 지원 후원

13개 지역별 챌린지 투어 QR코드, 미션 수행 QR코드, 설문조사 QR코드

대구시와 대구관광재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대구 대표 힐링·언택트 관광지 15곳을 선정해 오는 11월 말까지 '두근두근 챌린지 투어'를 진행한다.

'두근두근 챌린지 투어'는 모바일

을 이용한 비대면 미션투어 프로그램으로,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관광지 15곳과 경북관광지 100곳을 방문하고 여행자 개인 휴대폰으로 관광지에 설치된 QR코드 스캔만으로도 손쉽게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박류석대기자

### 달서구, 언택트(Untact) 보훈탐방!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 달서구 거주 학생 대상, 현충시설 체험수기 공모

대구 달서구는 현충시설 방문 활성화를 위해 달서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언택트 보훈탐방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광복의 달 8월을 맞아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언택트(Untact) 보훈탐방! 체험수기 공모전'을 8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최한다.

공모방법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 서비스 누리집에 등록된 현충시설을 탐방한 후 소감문·그림·카드뉴스 등 체험수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응모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달서구 관내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청소년으로 현충시설 방문 후 참가신청서 및 체험수기를 담당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을 선정하고 선착순 80명에게 1만원 상당의 온라인상품권을 제공한다. 수상자 발표는 8월 31일에 개별 연락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거나 달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언택트(Untact) 보훈탐방! 체험수기공모'를 참고하면 된다.

남궁영기기자

**언택트(Untact) 보훈탐방! 체험수기 공모**

**공모기간 및 발표**

- 공모기간: 2021. 8. 9.(월) ~ 8. 25.(수)
- 발표일: 2021. 8. 31.(화) ※입상자 개별 연락 예정

**공모내용**

-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후 체험수기 사진과 함께 제출
- 현충시설: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 서비스(http://mlis.mvva.go.kr) 누리집에 등록된 시설(묘, 동상, 공헌 등)
- 체험수기: 현충시설 방문 후 탐방기문 자유롭게 작성(소감문, 그림, 카드뉴스 등)

**참가방법**

- 참가대상: 달서구 관내 거주 초·중·고등학교 등 청소년
- 참가방법: 참가신청서 및 체험수기, 탐방사진을 E-mail(jd4590@korea.kr)로 전송
- 신청서(다름으로): 달서구청 누리집→행정→달서구청→공지사항 '언택트(Untact) 보훈탐방! 체험수기공모' 게시글 참조
- 문의: 전화(053-667-2517), 이메일(jd4590@korea.kr)

**시상내역**

최우수	1명	50만원	상훈권
우수	1명	30만원	상훈권
장려	2명	20만원	상훈권
입선	80명	1만원	상훈권, 선착순

※응모본수 및 심사기준에 적합한 신청서 수를 초과하여 인한 및 상금이 조정될 수 있음

대구광역시 달서구 / 광복의 달서구자부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 사랑을 실천하는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전개

#### 시민자율 참여형 프로젝트로 개인 가족단위 소규모 인원으로 봉사 프로젝트 수행

포항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역사회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자율 참여형 프로젝트로 개인·가족 단위 소규모 인원으로 각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의 자원봉사 활동이다.

포항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올해 7개의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을 살펴보면, △공공원·돌레길·등산로 245개 소를 대상으로 건강과 환경을 살리는 '구석구석 클린데이', △포항 방편과과 주조갯길 참여자 기념품 및 저소득층 생활용품 지원하기 위한 '방구석 자원봉사'로 집안에서 손뜨개를 통한 수세미와 양말목 냅비반침대 만들기, △북지·인권·환경·기초질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함께할게' 등이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5°C down 함께할게', △지역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고, 알리는 '지켜내요, 돌아와요 193,136 문화재 SNS캠페인', △와일드 속 안전에 취약한 아동들의 안전귀가를 위한 '교통안전 360°반사 키링 제작나눔', △일회용 우산 비닐 줄이기를 위한 '우산 비닐반이 사용 SNS 활동'도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다.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한, 자원봉사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 자료를 전송하고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권오성 포항시자원봉사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자원봉사에 대한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비대면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됐다"며, "현재까지 1,800여 명이 참여해 일상 속에서 자원봉사의 불씨를 퍼뜨리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용평리, 우리 골목 이목을 지어주세요!**

**공모주제:** 용평리 옛길의 추억과 이야기가 스며있는 향토적인 골목길 명칭

**공모대상:** 용평리도시기획사업지 일원 내 골목사업 구간 골목길 명칭

**공모지역:** 용평리 옛길의 추억과 이야기가 깃들인 누구나

**골목길 명칭 공모 기준**

- 한글(수자문) 가능, 7자 이내, 용평리 사업골목 내 구간 명칭
- 용평리 옛길의 추억과 이야기가 깃들인 골목길 명칭 설명

**시상내역:** 용평리사랑상품권

- 최우수상(1): 30만원 상당 상품권
- 우수상(2): 10만원 상당 상품권

**접수방법:** 용평리도시기획사업지센터 방문접수 및 이메일접수(yur206@naver.com)

**접수기간:** 2021년 8월 17일(화) ~ 8월 31일(수)

**문의사항:** 용평리도시기획사업지센터 055-963-5625



# 부산금정구, '랜선 송편 빚기' 어린이 참가자 모집

부산 금정구는 '추석 맞이 송편 만들기'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관내 초등학생을 오는 24일부터 온라인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금정구진로교육지원센터는 내달 11일 '추석 맞이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을 화상회의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전날 오후 대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요리 재료 등 체험 키트를 배부한다.

참여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이며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금정구진로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송편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진로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금정구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진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금생반디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일시 9월 11일(토) 10:00~11:00 / 11:30~12:30  
대상 금정구 관내 초등 4~6학년 40명(20명X2회)  
장소 온라인(ZOOM)  
신청기간 8월 24일(화) 10:00~ 선착순마감  
신청방법 금정구진로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geumjeongjinro.or.kr)

■ 체험키트 수령기간 및 안내 사항 ■  
- 수령일 : 9월 10일(금) 단 하루! 13:00~18:00  
※재미 특성상 정해진 시간 외에 수령 불가 / 반드시 기간 내 수령  
- 수령장소 : 대동대 평생교육원 1층 경비실(금정구 중앙대로 1610)  
수령링크는 문자로 안내되오니 정확한 번호 입력바랍니다.  
☎문의 510-4973 금생반디

# 창원시, 재활용품 배출방법 시뮬레이션 올려 누구나 시청 가능

### “복잡한 재활용품 배출방법 쉽게 동영상으로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재활용품 배출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창원시는 코로나19로 늘어나는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더 쉽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재활용품 배출방법 동영상 제작하여 시뮬레이션에 게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게시된 곳은 시뮬레이션 → 농업환경 → 창원재활용센터 → 재활용 체험 → 재활용 동영상에 게시되어 있다. 게시되어 있는 내용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탈(脫)플라스틱 고고 챌린지, 페이퍼팩 재사용 방법, 재활용의 끝타입 등을 볼 수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알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 이와 같이 동영상을 제작했고, 자원순환 관련 동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카테고리도 추가했다.



동영상을 시청하고 나서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이나, 시 홈페이지 분리배출요령을 참고하면 된다.

김태순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은 딱 3가지만 기

역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비우고, 헹구고, 품목별로 분리하고, 섞지않기이다”고 말했다. “특히, 날로 양이 증가하는 비닐류는 반드시 따로 투명봉지에 담아서 묶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궁영기기자

# 김해시, '사회적경제 모니터링단' 모집



**사회적경제 모니터링단 양성과정**

일정표 요약:

일시	장소	내용
8월 24일(화) 10:00~11:00	온라인	개강식
8월 27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8월 30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9월 3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9월 6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9월 9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9월 12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9월 15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9월 18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9월 21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9월 24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9월 27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9월 30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10월 3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10월 6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10월 9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10월 12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10월 15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10월 18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10월 21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10월 24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10월 27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10월 30일(금) 14:00~15:00	온라인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김해시는 18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경제 모니터링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모니터링단은 김해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공공체와 예비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육, 네트워크, 선진지 답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김해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인 '김해 행복공동체조성사업', '김해시 사회적기업 창업 BOOM-UP 사업'은 경남 기초자치단체 단위로는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0개의 예비 사회적경제기업(공동체)을 발굴하고 있다.

김해시 사회적공공체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실시하는 이번 사회적경제 모니터링단 양성과정은 오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4시간씩 총 4회 진행되며 사회적경제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니터링단 수료생은 김해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전문 활동가로 매칭돼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과 문의는 센터(홈페이지, 055-333-1400)로 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년 김해시에서 자체 육성하는 예비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동체 사회적경제 모니터링단과 함께 건강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울산소방본부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 오는 9월까지 신청 접수, 10월 중 7개소 선정 예정

울산소방본부가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울산시 관내 20개 업소가 선정되었다.

올해는 7개소를 신규로 선정하며 2019년에 선정된 11개소는 재심사를 통해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대상은 울산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이다.

영업주의 신청 또는 소방서의 추천을 통해 심사대상이 선정되며, 최근 3년간 화재발생 또는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위반사항 등을 심의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우수업소 인증 신청 접수는 오는 9월까지 가능하며, 이후 관할 소방서의 현장 확인,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 확정 결과가 발표된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다중이용업소 표지 부착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최광용기자

# 하동군, 양성평등 문화 조성 UCC·사진 공모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는 9월 양성평등주간을 앞두고 양성평등 문화 조성 UCC 및 사진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가족·학교·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 △여성과 남성을 구분 짓는 성차별과 고정관념을 없애는 사례 등 양성평등을 확산할 수 있는 주제의 순수 창작물을 응모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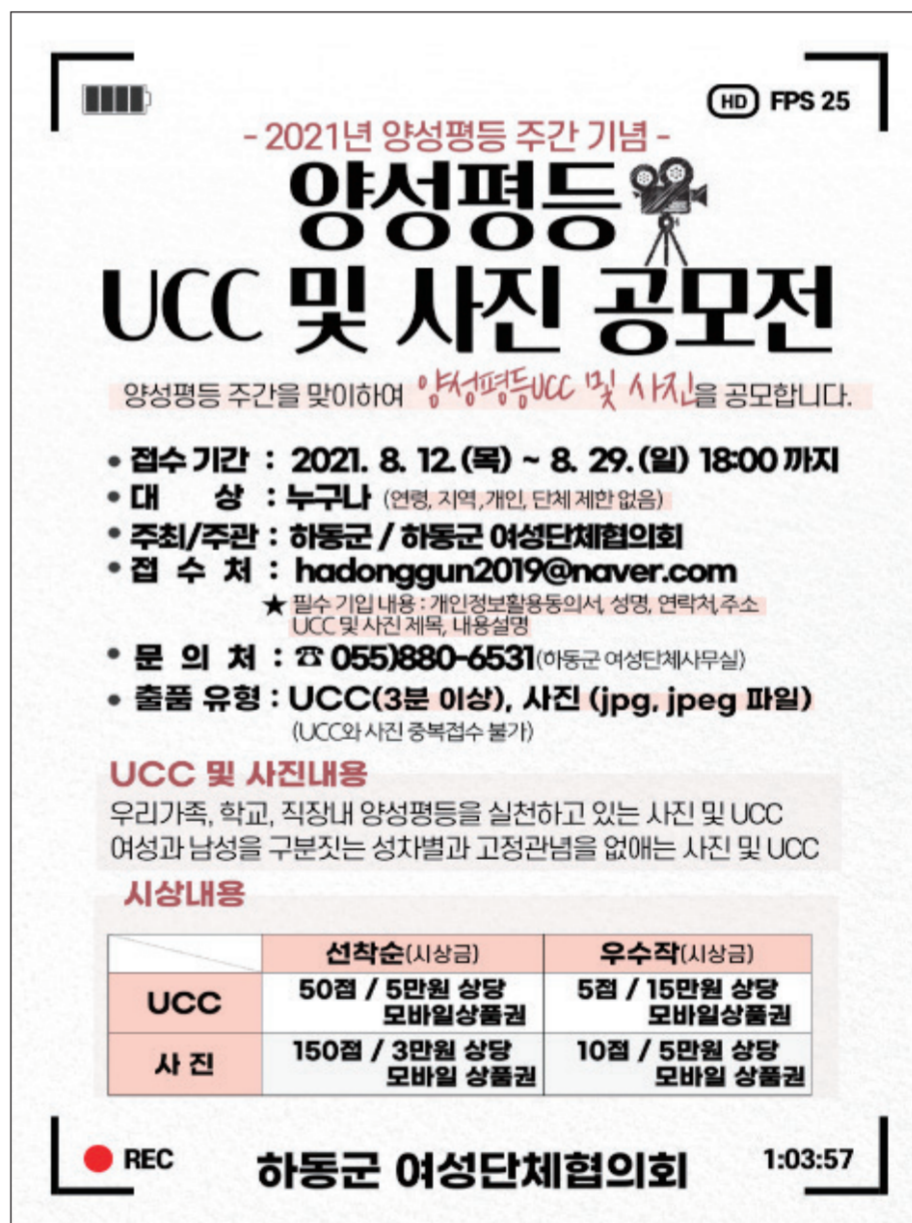
오는 29일까지 개인·단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9월 중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으로 작품 내용의 성인지 감수성 정도, 창의성 및 결과물의 활용성 등을 중점 평가하고, UCC 우수작 5점에 15만원 상당의 하동사랑모바일상품권, 사진 우수작 10점에 5만원 상당의 하동사랑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는 공모전 우수작을 양성평등주간에 전시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단체협의회는 문화로 스며드는 양성평등 행사 일환으로 9월 1일~10일 중 씨네Q알프스하동 영화관에서 4회로 나눠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영화는 양성평등을 함께 생각하고 확산할 수 있는 1편을 선정해 희망군민 300명을 대상으로 상영할 계획이다.



**- 2021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 -**

## 양성평등 UCC 및 사진 공모전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양성평등UCC 및 사진을 공모합니다.

- 접수 기간 : 2021. 8. 12. (목) ~ 8. 29. (일) 18:00 까지
- 대 상 : 누구나 (연령, 지역, 개인, 단체 제한 없음)
- 주최/주관 : 하동군 / 하동군 여성단체협의회
- 접수처 : hadonggun2019@naver.com
- ★ 필수 기입 내용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성명, 연락처, 주소, UCC 및 사진 제목, 내용설명
- 문 의 처 : ☎ 055)880-6531 (하동군 여성단체사무실)
- 출품 유형 : UCC(3분 이상), 사진 (jpg, jpeg 파일) (UCC와 사진 중복접수 불가)

**UCC 및 사진내용**

우리가족, 학교, 직장내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사진 및 UCC  
여성과 남성을 구분짓는 성차별과 고정관념을 없애는 사진 및 UCC

**시상내용**

	선착순(시상금)	우수작(시상금)
UCC	50점 / 5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5점 / 15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사 진	150점 / 3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10점 / 5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REC 하동군 여성단체협의회 1:03:57

# 거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비대면 직업인과의 만남 운영 “가고파~ 가치!”

거제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15일간 학교 밖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족공예 직업인과의 만남, 가고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는 거제시 꿈드림 소속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다. 당초 계획은 대면 집단활동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가족공예 체험키트를 각 가정으로 배부하고, 가족공예사로 일하는 전문 직업인과 영상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면으로 진행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상 아르바이트 및 개인 일정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경우도 있었으나, 비대면으로 전환하니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오히려 참석률과 만족도가 높았다.

참여한 청소년은 “영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강사님이 자

세히 설명해 주셔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다. 멋진 가족 명함 지갑을 만들었다. 다음에 내 명함이 생기면 여기 넣고 다니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거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이나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훈기자



최광용기자

# 고성군, 집중호우 대비 피해 우려 지역 긴급점검...비상체계 돌입

고성군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가을장마로 일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피해 우려 지역을 긴급점검하고 비상체계에 들어갔다.

기상청에 따르면 8월 20일 21시부터 경남도에는 30~80mm,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성군은 집중호우를 대비해 수방 자재·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해안 저지대, 급경사지 등 재해취약지역 153곳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또 피해예방점검단을 편성해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선박, 어항, 수산시설물 등 취약시설물 점검하는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피해가 심각했던 회화면과 마암면 등에 대해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앞서 백두현 고성군수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 부서장에게 장마가 시작되기 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백 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집중호우 시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군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 정세균 전 총리, 익산 침수피해 상가 신속 지원 협력

### 중앙동 침수 피해지역 현장 확인, 피해 상인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침수 피해를 입은 익산 중앙동 상인들을 위한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0일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중앙동 상가 일대를 방문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수홍 국회의원, 유재구 시의회 의장, 김용근, 김종영, 시의원, 상인회 관계자 10여명 등이 참석해 정 전 총리와 함께 수해복구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참석자들은 피해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매일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침수피해 현황과 침수피해 원인 규명 진행 상황, 침수

피해 지원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어 상인들은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침수 피해까지 입은 상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익산시와 협력해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피해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준 정세균 전 총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협력해 상인들이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수/기자

# 전북도, 코로나 19 극복! '온라인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개최!

### 8월 23일부터 9월30일까지 39일간, 우체국 쇼핑물(e-post) 연계 운영



전북도는 제12회 '전라북도 온라인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를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39일간 우체국(e-post)쇼핑물과 연계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마을기업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하여 우체국 쇼핑물(e-post)를 통한 '온라인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우수마을기업 제품 할인 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온라인 한가위 큰장터에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전북정보화마을협의회',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삼라장터직거래사업단',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8개 기관(단체), 126개 마을기업이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생생마을 한가

위 큰장터를 통해 126개 우수마을기업이 준비한 314개 상품을 1만원대 실속 선물세트에서 10만원대 최고급 홍삼세트까지 10~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9월 11일 10시부터는 전북도의회 주차장에서 사과, 박대, 딱갈비, 돈가스, 한과, 재래김 등 8개 품목 1,900세트를 준비하여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직접 선보일 계획이다.

농축산식품 신원식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마을기업이 이번 온라인 한가위 큰장터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도민들께서도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코로나 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 군산형 일자리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

군산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에디슨모터스가 19일 새만금공단 내 군산공장 신설을 마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날 준공식에는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 송하진 도지사, 강입준 군산시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했으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중앙부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공장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준공식은 기념식수, 준공기념 표지석 제막 등의 사전행사 이후 새로 지어진 공장동에서 축하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취명신)의 1호차 생산기념식 직후에 SNS를 통해 다니고벤의 첫 출고를 축하하며 "군산형 일자리는 군산과 전북 지역의 민생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접 축하의 글을 올린데 이어, 이번에도 영상메시지를 보내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군산시가 '내 고장 생산품'으로 구매한 중형저상버스 5대와 1톤 전기트럭 SMART T1 1호차를 구매업체에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가졌다.

또한 에디슨모터스는 자사생산



### 중대형 전기버스, 1톤 전기 트럭 등 친환경 상용차 생산기지

차량인 SMART 8.7(중형버스)와 SMART 11H(대형버스), 전기트럭 등을 전시해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였으며, 올 해 새롭게 출시한 1톤 전기트럭 생산라인을 공개했다.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에 위치한 에디슨모터스의 군산공장은 부지면적 105,785㎡(3만평 규모), 연면적 28,319㎡(8,600평 규모)의 생산시설로 전기상용차와 승용차를 생산하는 생산동 3동과 연구소 1동, 기숙사 1동 등을 갖췄다. 군산공장 임

직원의 85% 이상이 군산지역 출신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산공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대형 및 중형버스 100여대를 생산할 예정이며, SMART T1 (1톤 트럭)은 2,500여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선도기업인 에디슨모터스는 군산공장에 오는 2024년까지 302억 투자, 257명의 고용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5,550여대의 전기완성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김현태/기자

# 진안고원 치유 숲 환경부 지정 우수프로그램 인증으로 안정성 인정!!

진안군 정천면에 위치한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내 몸의 치유능력을 깨우자'가 전국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 받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의해 운영되며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정성 등을 심사해 지정하는 제도다.

이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객관적인 지정심사와 사후관리로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진안고원 치유숲의 '내 몸의 치유능력을 깨우자!' 환경성 질환 치유프

로그램은 천연물 마사지, 내 몸 다스리기, 내 몸과 대화하기, 자연 속 수(水) 치유 과정을 운영해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프로그램 우수성,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평가, 지도자 자격 및 배치, 안전관리 등 5개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프로그램 인증으로 인해 진안고원 치유숲 기관의 우수성과 안정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조백환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함에 따라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데, '내 몸의 치유능력을 깨우자!'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청정지역인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힐링하고 건강한 삶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 세계자연유산 신안군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 개관

### 자생식을 전시, 보전, 관리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

1004섬 신안군은 8월 18일 신안자생식물 전시, 보전, 관리하는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를 지난 1004뮤지엄파크에 개관하였다.

연면적 6,836㎡, 건축면적 804㎡ 규모인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는 지상 1층으로 건립됐으며 전시관, 체험실, 수장고, 연구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 6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는 2017년 12월에 착공해 건립공사가 진행됐고, 2021년 6월 전시연출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을 완료하여 개관을 준비해왔다.

전시관은 20개의 테마별(실물 전시, 영상, 키오스크, 증강현실 체험, 디오라마, 신안예코모자이크)로 신안과 연계된 자생식물의 이야기를 복합매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신안 고유의 식 식물, 희귀식물, 식성, 서식처 생태계에 대한 내용 등을 관

람객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연구센터는 동·식물 표본, 유전자원 등 2만 점의 생물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수장시설과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어 신안 도서, 연안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의 조사·발굴과 생물자원 유용성 검증과 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 도서지역 생물 사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 생물자원 확보 및 생태계 서비스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군은 향후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를 멸종위기 식물 종을 보호관리하는 '서식지의 보전기관'으로 환경부에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서식지의 보전기관이란 서식지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체계적으로 보전, 증식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하고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지정 기관은 3년 이상 당해 종에 대한 증식기술 연구 및 증식분양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 식물 증식시설 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내 유일의 도서지역 자생식물에 대한 연구·전

시시설인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의 개관을 축하한다"며 "신안자생식물 연구센터가 앞으로 도서지역 자생식물 보전과 식물자원화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의 개관으로 "1004 뮤지엄파크"에는 바다휴양숲공원, 1004섬 수석미술관, 수석정원, 신안새우관전시관, 세계조개박물관이 운영되어 관광객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조기석/기자



# '아이들과 시민 정책제안으로 행복 더하는 익산 만들어요'

### 아동, 시민 참여 정책발굴, 전문 패널토론으로 실효성 높여

익산시가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학생들과 시민들이 직접 정책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패널과 함께 아동 권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아동과 시민의 정책참여를 이끌어간다.

19일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제1회 아동권리 정책토론회는 '아이들의 행복을 더하는 (+) 하는 도시 익산'이라는 주제로 오백림 익산시 부시장,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각계 아동 사회복지 전문가와 아동을 포함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린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아동권리 정책토론회에는 토론정책 제안자 아동을 포함한 시민 20여명과 김수연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인숙 원광대학교 가족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용수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익 산정찰서 여성청소년과계장, 김경환

국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장, 이광미 아동복지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아동권리 정책토론회는 사전에 아동과 시민 40명이 온라인 비대면 토론회를 실시해 아동친화 6개 분야에 대한 정책 의제들을 결정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온라인 토론으로 사전에 정한 △놀이와 여가 △참견과 사회서비스 △안전과 보호 △삼각 분야에 대한 정책 의제들을 현장에 참석한 아동과 어른들이 다양한 키워드 형식으로 발표한다.

이에 패널들은 제안된 정책 키워드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익산시 아동정책의 발전 방향성과 정책 실효성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안된 정책은 전문가 패널의 의견과 함께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권리 정책 토론회가 아동과 시민이 정책과정

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써 익산시는 아동과 시민이 만든 정책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동의 아동에 의한 아동을 위한 정책참여 활성화를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마음껏 뛰놀수 있는 익산'을 비전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해 아동친화 6대 영역별 20개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이선수/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 휴양림 대상지서 관광지 육성구상

## 광주광역시,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성과설명회 개최

### 19일 화순 '양림원' 방문... '치유·힐링시설 조성위해 행정적 지원'

###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학생 대상 특구사업 소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화순 사평면 '양림원'을 찾아 코로나 시대에 전남의 비교우위 자산인 산림에서 휴양과 치유를 즐기는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육성 방안을 구상했다. 화순 '양림원'은 개인이 사유림에서 산림휴양 기반시설을 조성한 것이다. 자연휴양림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6월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했다.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면 2025년까지 사립 시설 중 가장 많은 예산인 300억을 들여 숲속의집 8동, 트리하우스 3동, 정원 및 야영시설 등 숙박 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전남도는 도민들이 전남에서 산림휴양·문화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회, 기재부 등 국비지원 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산림청 정부시책에 발맞춰 많은 사람이 산림에서 치유와 힐링을 누리도록 여러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김 지사는 "코로나 시대에 산림이 치유와 힐링, 체류형 관광을 견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면서 관계자에게 "양림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에는 여수 등 13곳에 공립 자연휴양림이, 광양과 화순에 각각 사립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다. 김영안기자



광주광역시는 19일 호남대학교 IT스퀘어 다목적강당에서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기업과 호남대간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2019년 11월 2차 특구로 지정된 이후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평동역 일원, 우치공원 등에서 무인노면정소차, 무인 산단용폐기물수거차, 무인 주거용폐기물수거차 등의 무인특장차가 실증운행을 하고 있다. 광주시, 호남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실증사업과 함께 자동차산업계의 호응을 유도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4월에는 특구사업 역외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설명회를, 6월에는 특구사업자 CEO 초청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광주시는 행사에서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학생들에게 특구사업을 알리는 동시에 특구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지역 내 우수 인재들을 고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저속차량의 용도, 임시운행허가 취득 후

실증은행, 향후 법·제도 개선을 통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어 개별 기업의 채용요강 및 요구 인재를 소개하고, 기업별 채용 상담부스에서 인사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특구사업자는 ㈜에이엠특장, ㈜이아우토반, ㈜화인특장, ㈜주원테크놀러지, ㈜한국쓰리축, ㈜케이스랩, ㈜유오케이, ㈜다윈테크 등 8개 기업이며, 이중 ㈜이아우토반, ㈜주원테크놀러지, ㈜케이스랩은 역외 이전기업이다.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은 "AI특성화대학인 호남대학교는 앞으로 자율주행 분야의 생태계 조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참여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지역 내 우수인재들이 광주에서 자리를 잡고 자동차 분야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해 다시 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이뤄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 화순군, 행정 서비스·재정 역량 인정받아...전국 군 단위 3위

### 구례군, 저소득층 2200명에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씩 지급

### '전국 지자체 평가'서 전남 유일 5위권 ...행정서비스 부문은 2위

화순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행정 서비스·재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화순군은 한국일보사와 한국지방자치회회가 실시한 '2021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종합 3위에 선정됐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55%)와 재정 역량(40%), 우수시책 사례(5%) 등 정량지표와 정성평가를 반영해 평가했다. 특별·광역시, 광역도, 인구 50만 이상·미만 도시, 자치구, 군 지역 등 6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 결과, 화순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에서 종합 3위에 올랐고 행정 서비스 부문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사회복지·보건·지역 경제·문화관광·안전·교육 6개 영역 36개 지표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부문 평가에서 화순군은 보건, 지역 경제 분야 지표 점수가 높았다. 분야별로 화순군은 보건 분야 1위, 지역 경제 분야 6위였다. 화순군은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선제 방역 시책, 백신·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이 호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지역에서 군 단위 종합 5위권 안에 포함된 지자체는 화순군이 유일했다. 호남지역에서는 화순군과 전북 완주군이 포함됐다. 구중곤 화순군수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펼친 민생 안정·지역 경제 활력 정책, 보건복지 분야, 미

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다소 미흡하다 평가받은 부분은 개선하고, 실사구시 정신으로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 체감도 높은 시책 발굴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구례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천2백여 명이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씩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차상위(본인 부담경감·자활) 가구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계좌 오류가 생기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확인을 거쳐 9월 15

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저소득층이 모듬하는 어려움을 더욱 클 것"이라며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등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상홍기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에너지밸리 성공을 뒷받침할 에너지 4대특구 완성

-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 강소연구 개발특구

# 동해시, 세계청소년의 날을 맞이해 동해 시청소년참여위원회 SNS 캠페인 활동

## 인류와 지구 별을 위한 도전 해봐!

동해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이해 청소년 참여 및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인류와 지구 별을 위한 청소년 도전해봐!' SNS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면 참여 활동들이 연이어 축소, 폐지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기획한 활동이다.

동해시민이며 누구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 사진, 텀블러 사용 사진 등 환경 보호를 위해 활동한 사진을 해시태그 등과 함께 SNS에 게시하면 된다.

동해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캠페인 종료 후 참가자 중 20명을 추첨해 텀블러, 대나무 칫솔 등으로 구성된 '환경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태호 동해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이 청소년 참여활동 및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에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청소년의 날은 국제연합(UN)이 청소년의 복지·세계 향상을 목표로 1999년에 제정해 매년 8월 12일, 주제를 정해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 주제는 '인류와 지구 별을 위한 청소년의 혁신'이다.

이동원기자



# 동해시, 강원 영동권 최초 동해별누리 천문대 정식 운영

## 동해시청소년수련관 부설시설로.. 9월 1일부터 정식 운영

동해시는 동해별누리 천문대를 9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해별누리천문대는 지난 2020년 강원도자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3억원(도 744,000천원 / 시 556,000천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착공, 올 7월 준공됐다.

영동권 최초로 건립된 동해별누리천문대는 동해시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1층 전시관, 2층 천체투영관, 3층 주 관측소 및 보조관측소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개장 전 8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단체, 학교장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정식 운영되는 별누리천문대는 평일에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일 격주 토요일에는 시민들을 위한 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9월 한 달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천체 관측 뿐만 아니라 만들기 체험, '우주비행사' 특강 등 다양한 개관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임정규 가족교육과장은 "이번 동해별누리천문대 건립으로 영동권 청소년들의 천문관측 체험 활동 기반을 구축하게 됐으며, 청소년들에게 천문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 충북소방본부, 봄철 소방안전대책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

## 충북소방, 봄철 화재예방대책 종합평가 '전국 1위'

충북소방본부가 소방청에서 평가하는 '2021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도단위 1위)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봄철 소방안전대책' 평가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화재예방을 위해 추진한 각종 성과를 평가받는 것이다.

충북소방은 화재피해 저감과 도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잡고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중점 시행했다.

그 결과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 대책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코로나19 대응체계 확립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체계 구축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충북소방이 펼친 주요 성과로는 기초·차상위계층 29,821가구 중 29,432(98.8%)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을 무상 보급·설치했으며, 화재경보설비의 오작동 방지를 위해 관리방법과 대처

방법 등을 안내문과 영상으로 만들어 관계인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 화재발생 시 피난안내 동선이 표시되도록 만든 'Speed Up, Safe Up'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매일 첫째 주 수요일은 점포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해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앞서 원활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내 백신접종 센터 14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고 불량사항 7건을 적발, 조치명령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등 언택트(Untact) 방식의 교육·홍보 시책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도 주력했다.

이러한 충북소방의 노력이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5월동안 발생한 도내



화재건수는 지난 5년간(3~5월) 평균 461건 대비 16.3% 감소한 386건을 기록했으며, 인명피해 또한 5년 평균 39.8명 대비 34명으로 14.6%(5.8명) 감소하며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장거리 소방본부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직

원이 노력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미진했던 부분은 올 하반기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해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충북소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논산시, 디지털 행정 협치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행정 혁신 이끈다

## 2021년 논산시 빅데이터 플랫폼의 읍·면·동 확대로 디지털 행정 체계 확대



논산시가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를 통한 공공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행정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논산시청 2층 상 황실에서 15개 읍·면·동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읍·면·동 공공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1년 빅데이터 기반 공공 스마트 시스템 구축 사업' 비대면 사업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공공 스마트 시스템'은 지난 2020년 시가 구축하여 디지털 행정의 모범사례로 선보인 '논산시 빅데이

터 통합 플랫폼'을 읍·면·동으로 확대 보급함으로써 시민의 니즈(needs)를 빅데이터를 통해 수집, 파악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시민·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향후 '공공 스마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기반으로 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모바일 설문조사 시스템, 실시간 유동인구·소비동향 등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관광·경제·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원호기자

# 서산시, 관내 1,160가구 대상 '2021 충남 사회조사'



충남 서산시가 23일 기준 관내 거주하는 1160가구를 대상으로 '2021 충남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조사는 사회적 양태를 양적, 질적 측면에서 측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된다.

조사는 오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되며, 총 19명의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로 진행된다.

조사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교육도 마쳤다.

이들은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등의 충남도 공통 항목(50개)과 서산시 특성항목(6개)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대면을 원치 않는 시민에게는 '인터넷 조사' 등 비대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터뷰 조사는 충청남도 사회조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희망가구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별도 안내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정책을 수립하고자 사회 조사가 진행된다"며 "대상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 충주시,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2기 수강생 모집

충주시가 오는 24일부터 '2021년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2기 수강생 1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1년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문예회관을 통해 예술과 기술이 창의적으로 만나고 과정을 경험하고, 미래 문화예술 직업군에 대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8월 6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2021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1기 과정을 교육 중이며, 95%의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2기 교육은 1기 교육과 같은 '숨이 오다' 아이로봇 TECHNOLOGY'를 주제로 예술과 기술을 조합해 작품을 3D로 구현하고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과

융·복합적 사고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2기 교육은 9월 4일 ~ 11월 5일 매주 금요일(9월 4일만 토요일)에 관아골 동화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 진행될 수도 있다.

교육 신청은 8월 24일 09:00 충주시문화회관 홈페이지 예약 사이트를 통해 공인 예매와 같은 방법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1기 학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2기 교육도 기대가 되고 있다"며, "2기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예술 형식의 융합형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최병일 재구 경북도민 향토봉사회장, 코로나 극복 성금 1억원 기탁

#### 향토봉사회원들도 십시일반 360만원 마련 기부

재구 경북도민 향토봉사회(회장 최병일)는 20일 경북도정을 방문해 경북도가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기부금 1억 36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최병일 회장이 1억 원, 재구 경북도민 향토봉사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360만 원으로 기부금 전액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위기계층 지원, 의료 서비스 지원 등 민생

살리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에 발족한 재구 경북도민 향토봉사회는 대구에 거주하는 지역 출향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소외계층 봉사활동과 고향 농·축·수산물 팔아주기 행사, 기부문화 정착 등 다양한 고향 사랑 운동에 힘써오고 있다.

특히 최병일 회장(우성환경 대표)은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사사이터 회원으로서 올해 5월 인재육성을 위해 대구 서구와 수성구에 각각 1억 원을 기부했다.

또한, 고향인 의성에는 고향발전기금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

을 통해 고향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최병일 회장은 "저도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지만, 서로를 보살피며 따뜻한 손을 내민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고향 이웃들을 위해 큰 돈을 선뜻 기부해주신 최병일 회장님과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성금은 민생 살리기와 소외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세기기자

### 안양시의회 이재명 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안양시의회 이재명 의원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대신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창근)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국 기초의회의원 중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한 공로가 큰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기초의회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재명 의원은 전문성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찾아 적극 해결 하는 등 안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 잘하는 지방의원으로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 의원은 평소 공무원들에게는 부담되지 않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귀담아 듣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행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 마음에 공감하는 대변자로서 신뢰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의원은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우리 안양시민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결과이므로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양시민들과 더욱 진솔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안양시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원종균기자

### 인기배우 정호빈의 깜짝 영천 방문

영천경마공원 조성 부지, 우로지 생태공원, 금호강변 꽃밭 등을 찾아 문화관광 도시로서 발돋움하는 영천의 생생한 현장 견학했다.

영천시는 20일 배우 정호빈이 농업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의 초대로 영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드라마 '선덕여왕'과 영화 '친구' 등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종합 무진 활약하고 있는 인기배우 정호빈은 지인을 통해 영천의 발전적인 소식을 들어왔으며,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보고자 방문한 것으로, 영천경마공원 조성 부지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우로지 생태공원, 금호강변 꽃밭 등을 찾아 문화관광도시



로서 발돋움 하고 있는 영천의 다양한 모습들을 눈에 담았다.

이 후 최기문 시장과의 면담에서 보현산권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영천 시립역사박물관 건립, 고(故) 신성일 배우의 기념관 건립 등에 대한 내용을 듣고 향후 영천의 문화관광분야 발전에 대해 더욱 기대를 갖게 됐다.

정호빈 배우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여유로운 전원생활이 가능한 영천을 직접 보아 뜻깊은 시간이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영천경마공원(금호)까지 연장되면 더욱 영천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늘의 인연을 계기로, 영천 홍보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발전하고 있는 우리 영천을 방문해 감사하다"며, "교통, 주거,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적인 영천 모습을 더욱 가꿔 나가겠다. 포도, 복숭아, 마늘, 한우·한돈 등 우수한 우리 농산품도 많은 홍보 바란다"고 전하며, 정호빈 배우의 앞날도 응원했다.

한반식기자

### 진천군, 제1기 우리 마을 건강 서포터즈 출범

진천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지역 주민들의 건강 활동을 지원하고 맞춤형 보건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제1기 우리 마을 건강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서포터즈의 정식 운영에 앞서 군 보건소는 지난 7월, 광혜원 고등학교 재학생 3명, 지역주민 1명을 제1기 서포터즈로 임명해 위촉장을 전달했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보건소,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천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콘텐츠(카드뉴스, 칼럼, 웹툰 등)를 자유롭게 자체 제작해 SNS에 게시해 홍보에 나서게 된다.

이 중 우수 콘텐츠는 진천군 공식 SNS 계정에 게시될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보건



사업과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경우 오프라인 서포터즈와 병

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아산시 온양1동, 복지통장 특화사업 '마음의 봄을 나누어 드립니다' 진행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각 마을 최고령 어르신들 찾아가 안부를 여쭙고 건강 상황을 살피는 복지통장 특화사업 '마음의 봄을 나누어 드립니다'를 진행했다.

'마음의 봄을 나누어 드립니다' 복지통장 특화사업은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인 안전과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코로나19로 활동의 제약이 있는 노령 가구의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복지통장의 추천을 받아 온천 1~17통까지 마을별 최고령 독거 어르신께 온양1동장과 복지통장이 함께 방문해 건강용품 지원 및 말벗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일권 통장은 "코로나19로 자녀들이나 이웃들과도 왕래를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대신해 복지통장들이 방문하니 어르신들께서도 좋아하셨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만태 동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뵈어 안부도 살피고, 대화를 나누실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어르신께서 무병장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양1동 복지통장은 각 마을별 최고령 어르신 가정방문뿐만 아니라 복지통장과 1:1로 결연된 가정에 매월 방문하는 행복키움두드림데이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재은기자

### 장석웅 전남교육감, 대안학교 교원 대상 '경청 올레'

#### "대안적 삶 꿈꾸는 아이들에 대한 정의로운 자들" 공감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19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전남 도내 공·사립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경청올레'를 가졌다.

이날 경청올레에는 전남도내 11개 공·사립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교장, 교감, 교사 26명이 참여해 장석웅 교육감과 대안교육 발전방안과 운영 여건 개선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참석 교원들은 △ 대안교육 교육과정의 자율권 확대 △ 대안교육 교사들의 자존감 향상 및 연수 운영 △ 타시·도 출신 학생들의 기숙사 운영비 및 조식식비 지원 확대 △ 전남 서부권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몇몇 제안들에 대해서는 법률개정과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하나씩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숙학교로 운영되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교사들의 업무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어렵고 대안적인 삶을 꿈꾸는 아이들에게는 '정의로운 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대안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행복한 삶과 자존감 향상, 교원보호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만기자

### 옥천군 제28대 포도왕, 군서면 차주현 씨 선정



옥천군은 20일 제28대 포도왕으로 사인머스켓 재배경력 6년의 차주현(67세, 군서면 상중리)농가를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옥천군 포도연합회장과 포도 관련 전문가 6명이 참여해 포도의 당도, 작황, 출하 유형, 재배활동 등 10개 항목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했다. 차주현 농가는 군서면 상중리에서 6,044㎡ 면적에 사인머스켓 포도를 전문으로 재배하여 송이크기가 고르며 병충해 피해도 적고, 당도도 18브릭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GAP인증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차주현 농가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신품종, 작황, 홈페이지 운영, 토양검정 등의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충북 포도연구회 회장으로 역임하며 포도 재배 관련 선도적 활동으로 기술보급에 많은 기여를 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만식기자

한 심사위원은 "포도송이 크기도 알맞게 키우고 식감이 아삭하며 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사인머스켓은 껍질째 먹는 품종으로, 거봉처럼 알도 크고 단맛이 강하며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군 관계자는 "차주현 농가는 포도 농업의 선도농가로, 앞으로 사인머스켓 농사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과 최근 식재해 수확을 앞둔 농가들에게 롤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 무더위쉼터 경로당 방문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삼양동, 강성원기자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8월 20일,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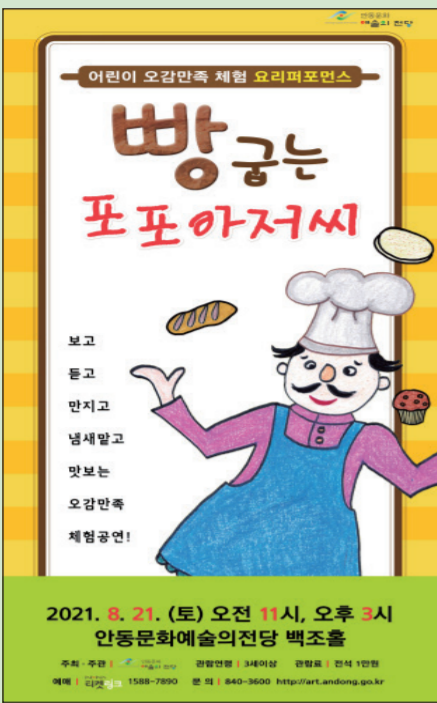
강북구는 8월 2일부터 무더위쉼터 확대를 위해 동별로 경로당 1개소를 개방하는 운영 중에 있다. 이날 이용균 의장은 각 동 동장 및 관계자와 함께 삼양동 팔팔 경로당, 삼각산동 래미안트리베라1차 아파트 경로당, 송천동 솔샘길 경로당을 각각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어르신들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이용균 의장은 일상에서 어르신들이 느끼는 고충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강북구청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날 무더위 쉼터 경로당 방문을 마치고 이용균 의장은 어르신들에게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인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하며 "구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강북구청과 경로당 관계자에게 "방역수칙 등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북구 무더위 쉼터 개방된 경로당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어르신이 이용 가능하며, 각 경로당에 감염관리책임자를 두어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어린이 오감만족 뮤지컬 요리 퍼포먼스 "빵 굽는 포포 아저씨"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름방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오감만족 뮤지컬 요리 퍼포먼스 "빵 굽는 포포 아저씨"를 21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백조홀에서 진행한다.

"빵 굽는 포포 아저씨"는 공연을 보면서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어린이 뮤지컬로 어린이들의 감성 자극과 창의력 발달에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경쾌하고 즐거운 멜로디의 음악 속에, 어린이들이 밀가루를 직접 반죽하며 촉각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 공연이다.

알퐁도리공 마을의 포포 아저씨, 안나 아줌마와 함께 빵집에서 동글동글 반죽을 굴러보고 길쭉 늘려보며 만들어내는 동화 속 이야기의 스토리로 관객과 출연진이 함께 공연을 진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신나는 음악과 그림자극, 인형극이 함께하는 "빵 굽는 포포 아저씨"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코로나19로 일상의 평범함을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여름휴가를 대신하여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세기기자

### 보령시, '바다 탐험대 옥도넛-보령바다 탐험보고' 기획전 개최

보령시는 오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령박물관에서 2021년도 기획특별전 '바다 탐험대 옥도넛-보령바다 탐험보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령바다의 보물찾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획전시는 어린이 애니메이션 '바다 탐험대 옥도넛' 캐릭터를 활용하여 보령의 바다를 탐험하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쉽고 친근하게 소개한다.

보령의 갯벌 및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 표본과 옥도넛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전시실을 구성하였으며, '탐험의 시작-보령갯벌, 보령바다 알아보기', '더 먼 바다, 영상 및 체험존', '2022년 보령바다에 무슨 일이?' 순으로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전시실에 입장하면 갯벌 미끄러움, 바다총 알아보기, 바다 생물 그리기 등을 옥도넛 대원들과 함께 수행하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고정화기자

이번 전시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협력해 20여 점의 다양한 생물 표본을 연출했으며, 길이가 5m에 이르는 고래상어 표본도 공개된다.

또한 찾아가는 시큐리움 사업의 일환인 'NO플라스틱-11월 동안의 메뉴展'을 박물관 로비에 전시해 붉은 바다거북의 이야기로 해양쓰레기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공간도 마련된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기획전이 보령의 갯벌과 바다를 탐험하며 해양생태계 보존 및 중요성을 상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다 탐험대 옥도넛'은 세계 160개국에서 방영된 웰메이드 애니메이션으로, 바닷속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출동해 문제를 해결하는 개성 있고 용감한 8명의 영웅과 다양한 해양생물의 이야기이다.

고정화기자



### 예산군,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문화난장콘서트Ⅱ 개최

예산군은 오는 8월 28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예산군문화예회관 공연장에서 2021 문화가 있는 날 8월 기획공연 문화난장콘서트Ⅱ '슬기로운 여(름)가(을) 생활'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군과 예산문화원, 지역예술단체가 협업으로 진행중인 문화기획프로그램인 '문화 박물관을 만나러 가자'의 세 번째 기획공연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다이나믹한 비보이 댄스부터 감성 짙은 어쿠스틱 보컬까지 한여름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공연은 여름과 가을 두 개의 콘셉트로 나눠 진행되며, 첫 번째 파트인 여름편에서는 지역 예술단체인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예산군지회'의 '예산방방곡곡 댄스버스킹'을 시작으로 비보이 댄스팀 '제스티사인 크루'가 다이나믹한 댄스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두 번째 가을 파트는 열린음악회와 하트싱어로 유명한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인 '최승열 밴드'가 어쿠스틱 감성의 감미로운 멜로디와 호

소록 짙은 감성 보이스로 가을의 서막을 알리는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산군민에 한해 200석 미만의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오는 8월 23일부터 예약접수가 가능하고 관람료는 전액 무료다.

예약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예산문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날 공연 내용은 코로나19로 관람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사후 공연영상 편집을 통해 군과 문화원 공식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관객의 안전을 위해 별도 체험행사나 부대행사는 진행하지 않으며, 행사 당일 공연장 입구에 방역부스를 마련해 공연장 소독과 출입자 통제, 발열체크 및 손소독, 전자출입자 명부 작성 등 관람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연 중에도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과 좌석 1칸 띄어 앉기 등 강화된 공연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정화기자



### 세종문화원, 문화가 있는 날 "여민락 콘서트" 개최

#### 독락동락 문화마실 "여민락 콘서트" 개최

2021년 세종시 세 번째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독락동락 문화마실 여민락 콘서트"로 8월 28일 저녁 7시, 도담동 방송천변에서 개최된다.

76주년 광복을 기념하여 '되찾은 나라'라는 주제로 독립운동을 기리는 태권도 시범공연을 시작으로 민요와 가곡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선소리 산타령 연구보존회 세종시지부에서 '경기산타령'과 '아리랑', '청춘가' 등 흥겨운 민요들로 한마당을 꾸며내며, 또한 한음오페라단에서 '그리운 마음', '명태', '경복궁 타령' 등의 우리 가곡을 함께 할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시가 공동 주최하고 세종문화원과 사단법인 한음이 주관한다.

세종시의 2021 문화가 있는 날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개최되며, 사전 접수를 통하여 관람 신청을 받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관람신청은 세종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최재은기자



###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2021 제1회 하계 유튜브 페스티벌 개최

#### 곧 펼쳐질 인공지능 시대,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를 준비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2021 하계 유튜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온라인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매일 1시간가량씩 국내 인기 유튜브 3인(킵블, 이고잉, 동빈나)의 강연에 참여할 수 있다. 킵블은 '공대생이 시작한 콘텐츠 스타트업(과학의 재미를 알려라)', 이고잉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술 머신러닝', 동빈나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한 Step by Step 학습순서와 최신 기술 검색 방법 알아보기'의 소주제를 다룬다.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8월 25일까지 포항시 홈페이지,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URL(인터넷 주소) 및 배부된 포스터의 QR코드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300여 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동의를 받아 강의 참석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이 끝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폐기할 계획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1년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의 일환이다. 본 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주)케이이투텍은 수강생의 학습상태를 실시간으로 강사에게 제공해 학생들의 흥미를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확산돼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품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나경 창조혁신센터 과장은 "이번 유튜브 페스티벌은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

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비대면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현안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2021 제1회 하계 유튜브 페스티벌. 곧 펼쳐질 인공지능 시대,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프로그램 개요, 신청서 제출 QR코드, 참가신청, 문의처, 후원처 등 상세 정보.

### 광명문화재단 시민대화모임 진행자 광명로컬콘텐츠큐레이터, <은하수지기> 교육과정 참여자 모집

(재)광명문화재단은 오는 8월 27일(금)까지 광명로컬콘텐츠큐레이터와 광명로컬콘텐츠큐레이터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2021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이다.

첫 활동은 2021년 9월 3일(금)에 시작하며, 12월까지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모집 기간은 2021년 8월 27일(금)까지이며, 광명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로컬콘텐츠큐레이터 <은하수지기>는 광명의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기록활동과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가는 광명시 문화도시 시민전담 양성과정으로 ▲퍼실리테이터 기본강의, ▲연구모임, ▲실습활동이 있으며, 교육수료 후 시민대화모임에 리더로 활동할 예정이다.

광명문화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은하수지기 교육을 통해 성장한 광명문화가들로 시민문화가버너스가 구성되고, 문화도시 광명의 시민위키킵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하수지기>는 광명시민 온라인 대화모임으로, 선정된 주제로 8월 셋째 주부터 11월까지 매주 온라인 대화모임을 진행한다.

현재 이 대화모임에서 이야기 나눌 다양한 대화주제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대화주제는 광명에서 살거나 일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주제라면 어떤 이야기든 가능하다.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광명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문의는 광명문화재단 문화도시팀(02-2621-8873)으로 하면 된다.

최정부기자



# 안성시, 2021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2차 신규가입자 모집

안성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신규 가입자를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일하는 청년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월 14만 2천원을 매칭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시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8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통장이다.

가입 대상은 공고일(2021.8.17.)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으로 가

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2021년 8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원칙이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안성시는 경기도 2차 모집인원 6,000명 중 77명을 배분받아 모집하며, 최종 선정자는 10월 15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청년을 아끼기! 아는만큼 더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매일 청년 인건 10만원씩 매일 경기도 지원금 14만2천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규모: 6,000명  
신청기간: 2021.8.24(일) 09:00 - 9.2(목) 18:00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account.jobab.net) 신청  
※ 세부내용은 경기도 모집 공고문 확인 필수

24개월간 10만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원(지역인건 100만 원 포함) 수령

# 부산지역 화장품 등 온라인으로 해외 판로 넓혀!

상담회 개최로 MOU 총 2건, 5만달러 수출 성과 거둬...  
우수한 지역제품 해외 진출의 장 마련



부산시는 19일부터 이틀간 벡스 코 제1전시장(지하 화상상담장)에서 '2021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에서는 부산지역 화장품 및 복지재활·항노화 제품의 해외 홍보와 수출을 위한 전시 및 체험행사,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온라인 수출상담회만 예정대로 진행하고 체험행사 등은 11월에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장품기업 24개사, 복지재활·항노화 기업 18개사와 일본,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 4개국 27개사를 포함해 총 69개사가 참여했다.

부산시는 성공적인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참여기업과 바이어(구매자)를 모집하였

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부스별로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대면 활동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화장품 1건, 항노화제품 1건 등 수출금액 5만달러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이번 상담이 수출계약으로 상담수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장품 기업은 프리미엄 달팽이 크림을 만드는 디엔비코리아, 항노화 기업은 발가락 교정기능 신발을 제조하는 썬오투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에는 우수한 화장품, 항노화 제품 등을 만드는 기업이 많으므로 시민들도 지역기업 제품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길 당부드린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단계를 밟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마케팅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경북도, 산·관·연 협력모델로 물 산업 육성한다

## 협력커뮤니티 통해 물 산업 기업에 기술개발 지원

경상북도는 19일 오후 물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선도 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과 함께 '2021년 물 산업 협력 커뮤니티'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대처하기 위해 '대내외 이슈에 따른 물 산업의 변화 및 동향'을 주제로 지역 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해외 판로 개척 및 신기술 분야 진출에 대해 정부 정책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며 물 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언과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내달 1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엔텍 2021 국제 환경에너지 산업전' 참가와 물 산업 선도기업 (온라인)간담회, '경상북도 물 산업 선도기업 지정 관리 지침 개정' 등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가졌다.

'물산업 협력 커뮤니티'는 경북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포항금



속소재산업진흥원 등의 연구기관이 협업체 물 산업 기업들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산관연이 함께하는 물 산업 지식연구회다. 2017년 9월 발대식을 한 이후 오는 12회 째를 맞는 협의체는, 지금까지 물 기업체에 34건의 연구개발(R&D)과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 지역 물 산업 기업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어 명실상부 대표적인 정보 공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 국장은 "정부의 물 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정확한 시장정보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 (재)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지원 시설 착공

## 세종시 4-2 생활권 첨단산업용지 6,000㎡ 부지, 연면적 1,288.83㎡ 규모, '21년 12월 완공

(재)세종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로부터 총사업비 34.5억원을 지원 받아 세종 4-2 생활권에 자율주행실증지원시설을 구축한다.

지난 5월 건축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착공식을 생략한 채 7월에 착공이 시작되었다.

지상 1층 건물 6개동으로 연면적 1,288.83㎡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2021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세종자율주행 실증지원시설"은 차고지(22대), 전기차 충전소(13기), 검사시설, 소독 시설 등을 지원하여 세종시에서 실증운행을 하는 자율주행기업을 대상으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정도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자율주행 장치들에 대한 연구 개발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원시설건축 참여기업은 건축(사일종합건설(주)), 전기(대신전기), 통신(세종환경기술(주)), 감리(김영남건축사사무소)로 모두가 세종시 관

내 소재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재)세종테크노파크 김현태 원장은 현재 수익원을 호가하는 자율주행차량이 마땅한 주차공간 없이 일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도로 한쪽에서 장비 점검을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세종자율주행실증지원시설" 구축으로 세종시 지역내 자율주행 기업의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종시가 자율주행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며, 빅데이터관제센터와 자율주행 실증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고양 풍동도서관, 어린이 경제 교육 '경제야 놀자'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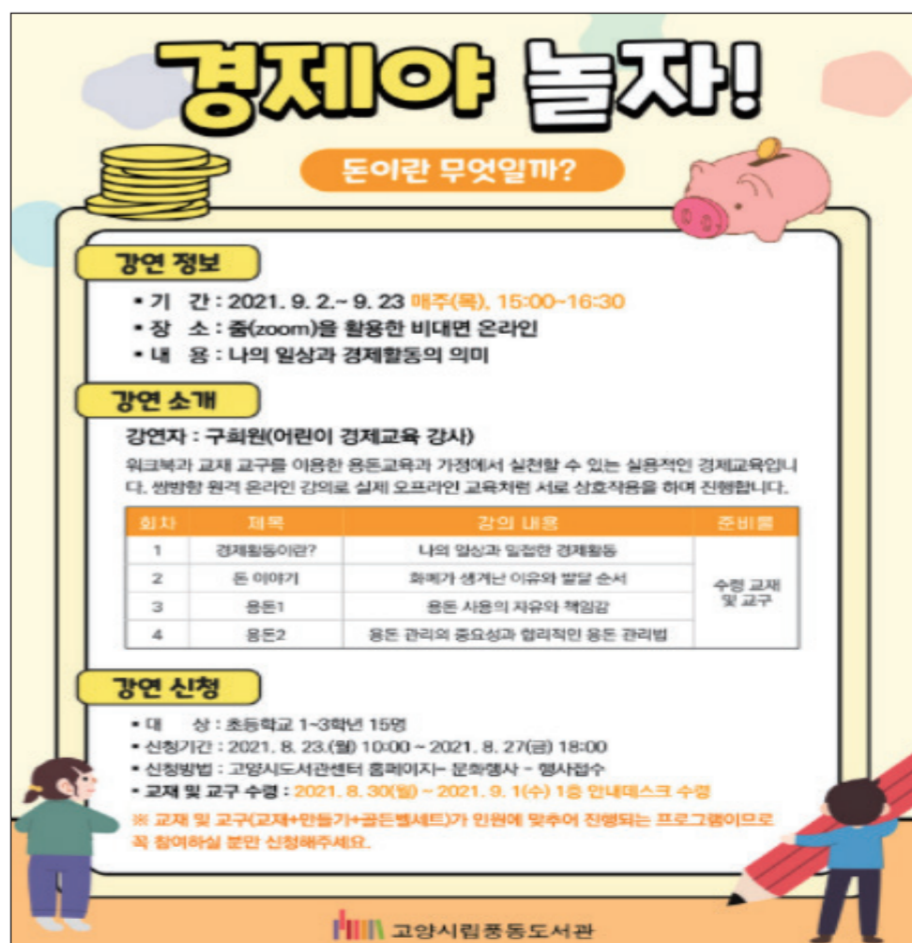
## 교재·교구 활용 능동적 경제 교육 '선착순 15명'

고양시 풍동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오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4회(매주 목요일 15:00~16:30)에 걸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어린이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워크북과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용돈을 쓰는 방법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경제교육이다. 또한 쌍방향 원격 온라인 강연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 교육처럼 강사와 수강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다.

▲1회: 경제활동이란?(나의 일상과 밀접한 경제활동), ▲2회: 돈 이야기(화폐가 생겨난 이유와 발달 순서), ▲3회: 용돈1(용돈 사용의 자유와 책임감), ▲4회: 용돈2(용돈 관리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용돈 관리법)의 순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8월 23일(월) 오전 10시부터 고양시도서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 15명까지 가능하다.

교재 및 교구의 수령은 8월 30일



경제야 놀자!

돈이란 무엇일까?

강연 정보

- 기간: 2021. 9. 2 - 9. 23 매주(목), 15:00-16:30
- 장소: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 내용: 나의 일상과 경제활동의 의미

강연 소개

강연자: 구희원(어린이 경제교육 강사)

워크북과 교재·교구를 이용한 용돈교육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경제교육입니다. 생생한 원격 온라인 강의로 실제 오프라인 교육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진행됩니다.

회차	제목	강의 내용	준비물
1	경제활동이란?	나의 일상과 밀접한 경제활동	수령 교재 및 교구
2	돈 이야기	화폐가 생겨난 이유와 발달 순서	
3	용돈1	용돈 사용의 자유와 책임감	
4	용돈2	용돈 관리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용돈 관리법	

강연 신청

- 대상: 초등학교 1-3학년 15명
- 신청기간: 2021. 8. 23(월) 10:00 - 2021. 8. 27(금) 18:00
- 신청방법: 고양시도서관센터 홈페이지 - 문화행사 - 행사참수
- 교재 및 교구 수령: 2021. 8. 30(일) - 2021. 9. 1(수) 1층 안내데스크 수령

※ 교재 및 교구(교재+활동지+용돈일지)가 인원에 맞추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므로 꼭 참여하실 분만 신청해주세요.

고양시풍동도서관

오전 10시부터 9월 1일 오후 6시까지 풍동도서관 안내데스크에서 무료 수령이 가능하며 인원에 맞춘 교재

및 교구이므로 꼭 참여가 가능한 인원만 신청해야 한다.

최정근기자

# 충남도, 첨단 기술 기반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한다

## 충남도, 첨단 기술 기반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한다

충남도가 부여군 규암면 일대에 친환경 양식시설 등 첨단 기술 기반의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한다.

도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1년도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해수부가 내수면 양식업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내수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친환경 내수면 양식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35억 원 등 총 70억 원을 투입해 부여군 규암면 일대에 3만㎡ 규모로 내수면 어종 친환경 양식시설, 환경기초시설, 용수공급시설, 녹지 및 저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성을 높이고 폐사율을 낮추는 어종 맞춤형 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유지하고,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고효율 양식시설 스마트 패키지 지원을 통해 특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 유발 40.7명, 생산 유발 13억 1000만 원, 부가가치 유발 2억 4300만 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양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규모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해 내수면 분야 6차 산업 모델 육성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내수면 양식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수면 양식단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3개소(충북 괴산, 전남 화순, 전북 남원)가 운영되고 있다.

고정화기자

# 부산시 박형준 시장, 코로나 대응 보건인력 102명 신규 배치 및 근무여건 개선!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보건인력 102명 신규공무원 102명을 구군 보건소 등에 18일 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휴직 등 사유로 부산시 관내 보건소 근무 인력은 920여 명으로 적정 인력(1,000여 명)보다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 보건인력 총 147명을 선발, 10월 말에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두 달 앞당겨 채용 절차를 진행했고 이 중 102명을 구군 보건소 등에 먼저 배치했다.

이는 의료 보건 인력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군 보건소 인력 보강을 통해 현장의 의료공백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의료진들의 고충이 한층 더해진 현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이번에 신규인력을 조기 배치하여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의 인력 부족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새겨듣고 방역 현장에 인력, 장비 등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지난 5월 28일 코로나 대응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의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 근무여건 개선 등 대책을 발표하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 '취향의 아이콘' iKON(아이콘)의 모든 것 공개!

20일 오전 11시 iKON(아이콘)의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 '취향의 아이콘 : One Summer Night'이 공개된다. 짝꿍 '김메이트'가 된 10년 전 친구 아이콘의 예측 불가 케미부터 멤버들 간의 심야 속마음 토크까지 세 가지 관련 포인트가 이목을 사로잡는다.

2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첫 공개되는 wavve(웨이브)의 오리지널 웹예능 '취향의 아이콘 : One Summer Night' (제작 SM C&C STUDIO-wavve(웨이브), 연출 김현주)에서는 10년을 함께 생활해 온 아이콘 멤버들이 짝꿍 '김메이트'를 정해 색다른 케미는 물론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서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까지 볼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담아 기대를 모은다.

'취향의 아이콘 : One Summer Night'은 아이콘 멤버들의 2박 3일간 강릉 여행 기록을 담은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10여 년간 함께 살아 온 멤버들이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함께 지내 온 세월이 10년이 넘는 아이콘 멤버들은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한다. 그런 '뽕잘알' 아이콘을 위해 서로의 취향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김메이트' 여행이 준비된다.



'김메이트'로 선정되면 하루 동안 멤버들은 서로를 위해 가장 싸주기부터 '동침'까지 할 예정이어서 이들이 보여줄 색다른 케미에 기대감이 모인다.

이렇듯 '김메이트'가 정해진 아이콘 멤버들은 각양각색의 케미를 뽐낸다. 나이만 같고 취향부터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게 정반대인 '상극 95즈' 바비와 송윤형은 시작부터 극과극 케미를 보였는데, 심지어 바비가 송윤형에게 문자로 "미안해"라고 보내는 상황까지 생겼다고 해 궁금증을 자극한다.

그런가 하면 천생연분을 만난 것 같은 알콩달콩한 케미를 뽐내는 '김메이트' 커플도 등장한다. 막내 같은 만형 '만내' 김진환과 만형 같은 막내 '막형' 정찬우가 그 주인공. 둘도 없는 사이처럼 보이는 김진환과 정찬우는 사실 한 방에서 같이 자는 건 처음이라고. 이 둘이 보여줄 첫 '동침' 투샷은 어떤 그림일지 호기심을 유발한다.

또 다른 동갑내기 '김메이트' 구준호와 김동혁의 케미도 눈길을 끈다.

김동혁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구준호를 상대로 깜짝 몰래카메라를 준비해 재미를 선사할 전망이다. 팬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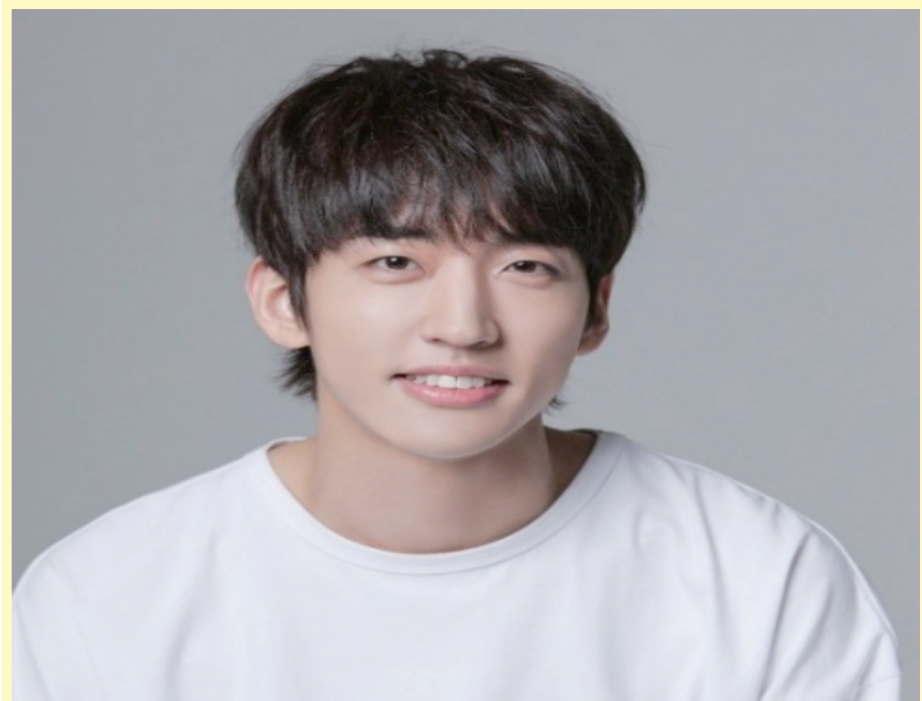
이 외에도 '취향의 아이콘'에서만 볼 수 있는 아이콘 여섯 멤버의 심야 속마음 토크도 관련 포인트다. 깊은 밤 펼쳐지는 아이콘 멤버들이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진실과 진심은 20일 오전 11시 '취향의 아이콘 : One Summer Nigh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향의 아이콘 : One Summer Night'은 2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wavve(웨이브)'를 통해 첫 공개되며, 매주 금요일 방송된다. 또한, 태국 OTT 플랫폼 'trueID(트루아이디)'에서도 동시 방영된다.

이후 낮 12시에는 아이콘이 함께하는 '취향의 아이콘' 라이브 생중계가 SM C&C STUDIO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어진다.

한편, SM C&C STUDIO는 wavve(웨이브), seezn(시즌)을 비롯해 유튜브, 네이버 V LIVE(V앱), 네이버 TV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OTT 경합을 주무기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공식 채널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 시청자와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현유주기자



## 이승윤,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싱어송라이터' 부문 수상!

가수 이승윤이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통해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이승윤이 19일 한국소비자포럼이 발표한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 결과에서 '올해의 싱어송라이터' 부문을 수상했다.

이승윤은 지난 6월 신곡 '들려주고 싶었던'을 발표하며 솔로 싱어송라이터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기

타 리프를 중심으로 청량한 밴드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이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매년 대국민 소비자 투표를 통해 한 해를 빛낸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행사다.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한다. 올해로 19회 짝을 맞이했다.

최재은기자

## 김세정!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 올해의 멀티태너 수상!

연기·음악·예능·뮤지컬까지 전분야 접수!



가수, 배우, 뮤지컬 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세정이 '2021 올해의 멀티태너'로 선정되며 유일무이한 '톱 아티스트'임을 입증했다.

김세정은 지난 19일 한국소비자포럼에서 발표한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올해의 멀티태너' 여자 부문 주인공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김세정은 올 해 가수이자 배우, 예능인 등 1인 다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독보적인 만능 캐릭터임을 입증했다.

특히 김세정은 올해 최고 화제의 드라마로 꼽힌 '경이로운 소문'에서는 리얼하고 자연스러운 연기력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했으며, 두 번째 미니 앨범 'I'm'를 통해서 다양한 감성을 표현할 줄 아는 솔로 뮤지션으로 자리잡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연기력과 가창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김세정은 현재 뮤지컬 '레드북'에서도 많은 대중의 극찬을 받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공개될 SBS '사내 맞선'에서 영풍발달 매력의 궁정만렙 신하리 역으

로의 출연도 앞두고 있어 다채로운 캐릭터 변신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김세정이 꾸준한 활동을 통해 다방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무한 발산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매년 대국민 소비자 투표를 통해 한 해를 빛낸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행사로,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고 있다. 올해 소비자 투표에는 610,395명이 참여해 역대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김세정은 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김세정은 올 하반기 SBS '사내 맞선'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방면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유일무이한 2021 대세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연기는 물론이고 음악, 화보, 광고계에서 활동 중인 김세정은 향후에도 '전천후 활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재은기자

## 새 월화드라마 '하이클래스' 조여정-김지수 만남 포착

tvN '하이클래스' 조여정과 김지수의 국제학교 첫 만남 스틸이 공개됐다.

오는 9월 6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월화드라마 '하이클래스'는 파라다이스 같은 섬에 위치한 초호화 국제학교에서 죽은 남편의 여자와 얽히며 벌어지는 치정 미스터리. 조여정, 김지수, 하준, 박세진, 공현주가 주연을 맡고 드라마 '에덴의 동쪽', '앵그리맘', '미생나인' 등으로 세련된 연출력을 인정받은 최병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극중 조여정은 남편의 살인범으로 몰리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8살 아들을 지키고자 국제학교로 향하지만 엄마들 사이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송여울' 역을 맡았다.

이와 함께 김지수는 호텔을 소유한 모태 금수저이자 엄마들의 중심에서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국제학

### 미소 사이 흐르는 미묘한 기류 '긴장 폭발'



교의 여왕 '남지선'으로 분한다. 이 가운데 국제학교에서 처음 만난 송여울과 남지선의 스틸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최만식기자

공개된 스틸 속 송여울은 터전을 옮겨 새롭게 만나게 된 학부모들을 둘러보며 두 눈을 반짝이고 있다.

그런 그녀의 눈빛과 표정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이 느껴지는 듯 하다. 또한, 남지선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송여울의 모습에는 앞으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사건을 상상조차 못하는 행복이 깔려 있어 긴장감을 선사한다.

이윽고 남지선은 기쁨 넘치는 미소로 송여울을 응대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입가에 머금은 미소와는 달리 국제학교의 뉴페이스인 송여울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녀의 의미심장한 눈빛이 등골을 송연하게 한다.

이에 각기 다른 감정을 품은 미소로 첫 만남을 가진 송여울과 남지선의 앞에 하나씩 베일을 벗어갈 죽은 남편이 남긴 비밀에 관심이 증폭된다.

## 도경완, 장윤정 댄스실력에 과거 의심!

'장윤정의 도장깨기' 장윤정이 도경완에게 과거 행적을 의심받을 정도로 '소식적 놀던 언니' 클래스를 화끈하게 뒤흔든다.

오는 19일 방송되는 LG헬로비전 오리지널 新 예능 '장윤정의 도장깨기'(연출 류복열/제작 LG헬로비전) 4회에서는 강원도 강릉에서의 두 번째 캠핑이야기가 그려질 예정. 이 가운데 장윤정이 전설의 백업 댄서 최철민을 '캠핑메이트'로 맞이해 그동안 억눌러왔던 댄스 본능을 폭발시킨다고 해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장윤정을 비롯한 도장패미리는 역대급 캠핑메이트와 조우했다. 90년대 레전드 댄스 그룹인 클론을 비롯해 김건모, 신승훈, 박미경, 노이즈, 홍경민, 채연, 보아, 베이비복스, NRG, 하리수 등 당대 최고 가수들의 백업 댄서로 활약했던 최철민이 등장한 것. 특히 최철민은 보아의 '넌버 윈', 채연의 '위험한 연술' 속 포인트 안무도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밝혀 현장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최철민의 등장과 함께 캠핑장은 일순간에 야의 무도회장으로 돌변했다. 캠핑메이트 입장

곡으로 클론의 '조련'이 흘러나오자, 장윤정이 전주만으로 곡을 파악하고는 광란의 야광봉 댄스를 추기 시작한 것.

급기야 장윤정은 "나 이 노래 안무다 안다"며 무대 중앙으로 뛰쳐나와 완벽한 커버댄스를 선보여 원곡 댄서인 최철민까지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도경완은 "완전 날라리다. 도대체 언제부터 눈겨냐"며 해명(?)을 요구해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이날 장윤정은 제작진을 향해 "이런 분 오신다고 미리 이야기 해줬으면 다른 옷 입고 왔을 거 아니냐"고 말하며 아쉬워하는 등 댄스에 진심인 모습으로 폭소를 자아냈다는 전언이다.

이에 왕년에 무도회장을 주름잡던 장윤정의 흥과 끼를 엿볼 수 있는 '장윤정의 도장깨기' 분 방송에 기대감이 수직 상승한다.

장윤정이 기획하고 도경완이 함께하는 본격 도장부부 프로젝트 예능 '장윤정의 도장깨기'는 장윤정-도경완 부부가 트로트 수제자 광지은-해수와 함께 캠핑카를 타고 전국적 숨은 노래 실력자를 찾아 조국의 레

슨을 선사하는 캠핑 버라이어티다.

19일 오후 5시, 9시에 LG헬로비전 지역채널 25번을 통해 4회가 방송된다.

현유주기자



정희희기자